



The Women's Studies

2019년 3호

| 연구논문 |

- 학제간 융합연구에서 성불평등과 여성연구자의 지위 김수한 · 박동준 · 박소윤
-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 일상생활에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구은정
-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기나휘 · 유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학제간융합연구에서 성불평등과 여성연구자의 지위 / 김수한·박동준·박소윤	5
2.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 김자영	37
3. 일상생활에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 구은정	61
4.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 기나휘·유계숙	105

학제간융합연구에서 성불평등과 여성연구자의 지위*

김수한**·박동준***·박소윤****

초 록

학제간융합연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융합연구가 학문의 다양성과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관심은 적었다. 이 논문은 182개의 학제간융합연구팀과 이에 소속된 1,184명의 연구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참여, 연구책임자, 팀구성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 보았다. 핵심적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연구를 주도하는 전공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은 편이다.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여성의 전공은 제한되어 있으며, 중대형 과제에서 여성이 대표하는 분야는 소수에 불과하다. 둘째,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낮은 편이고, 특히 중대형 과제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더욱 줄어든다. 셋째, 연구책임자의 성별과 융합과제의 규모에 따라 팀의 구성이 달라진다. 여성이 연구책임자일 때 성별 균형과 다양성이 유지되지만,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때 남성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학제간융합연구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이 사업을 통해 성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정책적 대안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주제어 : 학제간융합연구, 성불평등, 여성연구자, 팀구성

*이 글의 초고는 2017년 정거사회학대회 경제-조직분과와 2018 Spring Meeting of the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RC28)에서 발표되었다. 학술대회 참여자들과 자료수집에 참여했던 조준철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여성연구> 심사자분들의 조언과 논평이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9598).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kimsoohan9@korea.ac.kr)

*** University of Arizona 사회학과 박사과정 (djpark@email.arizona.edu)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과 박사과정 (spark553@wisc.edu)

I. 서론

여성의 대학진학과 노동시장 진출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성별에 따른 학부와 대학원 전공 선택의 차이와 졸업 이후 일터에서의 성별 직무 분리는 지속되고 있다. 어학 및 인문학 분야를 전공하는 여성의 비중은 높지만 높은 소득과 취업에 유리한 스템(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공에서 여성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황수경, 2002; Weeden, Thébaud, & Gelbgiser, 2017). 전문직과 관리직에서 남성과 여성이 수행하는 주된 영역은 여전히 구분되어 있다(박기남, 2002; 원숙연, 2012; 허은, 2013).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의 전공별 분포에서도 성별에 따른 분리와 차별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장미혜, 2001; 민무숙, 2002; 조혜선, 2003). 공학계열에서 여성교수의 비중은 5%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가정학 분야의 경우에는 85%가 여성교수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7). 동일한 전공에서도 여성에게 기대되는 전문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한국에서 사회학 전공 여성 전임 교원의 59%는 여성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천선영, 2013).

한편으론 전문 영역에 따라 성별 분리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융합과 학제간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Rhoten & Pfirman, 2007; Leahey & Moody, 2014). 학제간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는 전공과 분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다른 배경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져와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는 것을 일컫는다(Stokols et al., 2008; 김형진·김은정·이승연, 2018). 융합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생성하며(Walsh, Smith & London, 1975), 단일 학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연구 문제를 탐구하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송위진·성지은·장영배, 2011). 융합연구는 국내 대학과 학계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부터 매년 인문사회분야와 자연 및 공학분야와의 융합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한국연구재단, 2015), 융합전공 단과대학 및 전공이 많은 대학에 설립되고 있다. 아산학술재단과 같은 민간 학술지원기관들도 개인의 단독연구보다는 팀에 의한 융합연구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다.

융합연구에 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동연구를 위해 어떤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협업하는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융합연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한지, 융합연구에 대한 강조와 지원의 증대가

여성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기회 혹은 제약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의 목표는 성별에 따라 전공자의 구성 및 교수의 분포가 상이한 대학과 학계에서 융합연구의 증대가 여성 연구자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학제간융합연구사업에 선정된 182개 팀과 이에 소속된 1,184명의 연구자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융합연구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학제간융합연구 지원이 학문의 다양성과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대학 및 학계에서 여성의 대표성, 사회자본, 지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학제간융합연구와 관련된 배경설명 및 이론적 논의, 자료수집, 경험적 분석의 순으로 전개된다. 우선 1990년대 이후 융합연구가 한국의 대학과 학계에 확산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전공 분야별 융합연구에 관한 관심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에서 융합연구의 확산을 주도한 학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융합연구는 협업과 팀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협업이 개별 분과 학문에서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학 및 학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여성의 사회자본도 공동연구 참여의 기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제간융합연구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자의 특징과 융합연구팀의 조직구조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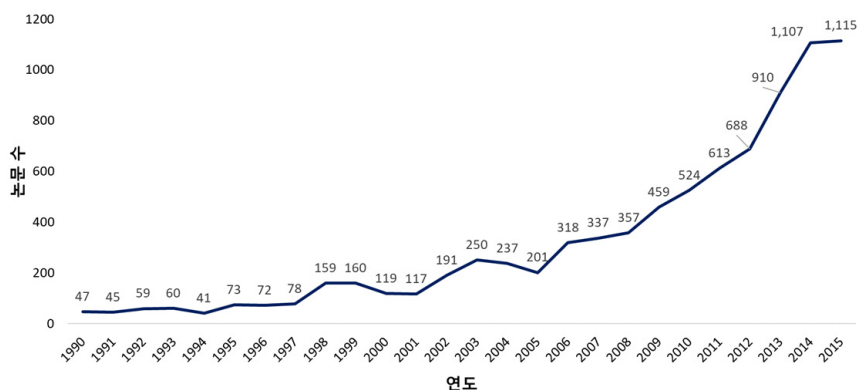
II. 배경설명 및 이론적 논의

1. 융합연구의 확산과 학문별 차이

1) 융합연구의 확산

한국에서 융합연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학술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빈도는 융합연구 확산을 가늠하는 방법이다 (Jacobs & Frickel, 2009). [그림 1]은 1990-2015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융합연구와 관련된 8,337편의 논문을 출간된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¹⁾ 그림

이 보여주듯이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어 2000년대 중반에 빠르게 증가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전체 분야를 통틀어 50편 정도에 불과했던 융합연구 논문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연간 100편을 넘어서고, 2000년대 초반에는 200편을 넘어선다. 융합 관련 연구논문의 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4년 1,107편, 2015년 1,115편이 출간되었다.



[그림 1] 연도별 국내 융합연구 논문 수, 1990-2015년

융합연구 논문이 증가하는 시기에 학부와 대학원에 융합전공이 신설되고, 융합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 기간에 융합연구 관련 세미나와 학술모임이 증가했고 정부, 대학, 연구재단, 민간기관에서 융합연구 지원이 강화됐다(한승환·경정운, 2011).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2009년), 중앙대 융합공학부(2010년),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2011년), 고려대-KIST융합대학원(2013년) 등과 같이 학부 및 대학원에 융합전공이 설립되었다. 또한 대학부설 융합연구소가 본격화되고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정부출연기관도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센터와 하위조직이 설립되었다(이광호 외, 2013).

1) 한국학술정보(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통해 연도별 논문 수를 파악했고,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는 ‘융합’, ‘학제간연구’, ‘다학제’, ‘학문간연구’ ‘interdisciplinary’이다.

2) 분과학문별 융합연구 수용도

융합연구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확산되었지만 개별 전공에 따른 수용 정도는 상이하다.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응용을 중시하는 전공은 융합연구에 적극적이지만, 전공의 정체성과 범위가 명확한 분야나 응용을 덜 중시하는 분과에서는 융합연구 수용이 낮은 편이다. 또한 정부나 연구비지원 기관의 지원에 의존하는 분야에서 연구비 확보를 위해 융합연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Jacobs & Frickel, 2009).

한국에서 1990-2015년의 기간 동안 80개 이상의 학문분야에서 융합연구에 관한 학술논문을 출간했지만 분야별 빈도와 집중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에 제시된 8,337편의 논문에서 교육학이 총 843편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기타예술체육(704편, 8%), 미술(585편, 7%), 경영학(554편, 7%), 역사학(452편, 5%), 한국어와문학(346편, 4%), 철학(290편, 3%), 자연과학일반(289편, 3%), 일반의학(281편, 3%), 기타인문학(262편, 3%) 등의 순서로 융합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상위 10개 학술분야에서 발표한 논문은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11위-20위에 해당하는 분야에 발표된 논문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융합연구에 대한 논의가 소수의 학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서 융합연구 참여의 용이성은 자신이 소속한 분과학문마다 다르다.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전공분야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이용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많은 수고를 덜고 시행착오를 적게 경험할 수 있다. 학회가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며, 전문 학술지를 발행할 정도로 제도화를 이룬 융합연구 분야에서는 개별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적다(Scott, 2014). 반면, 관련 문헌이 덜 축적된 영역 혹은 학문적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전공에 속한 연구자는 여러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가 소속된 분과학문에서 융합연구가 일반화되고, 연구영역으로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한 개인 연구자가 깊어지게 될 부담과 위험이 크다.

전공 분야별 융합연구에 대한 제도화 수준의 차이는 개별연구자의 융합연구 참여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영향을 준다. 교육학과 같이 융합연구가 빈번한 전공에서는 학제간융합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동료들 사이에 당연하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분과학문에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 융합연구의 결과는 저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Guetzkow, Lamont & Mallard, 2004). 융합연구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분야에서 출간

되는 논문은 분과학문의 전통에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중만·최민석, 2010).

3) 공동연구의 일반화 정도

융합연구는 팀에 의한 공동연구의 행태로 진행된다. 특히 본 논문의 초점이 되는 학제간융합연구는 상이한 전공계열의 전공자들이 팀을 구성해야한다(한국연구재단, 2015). 따라서 분과학문 내에서 공동연구가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 팀연구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융합연구 참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협업과 팀연구(team science)의 일반화 수준은 분과학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팀연구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Cummings & Kiesler, 2007). 이공계열에서 단독으로 출간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공동저자 형태로 발표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Guimera et al. 2005; Leahey, 2016). 사회과학의 경우 미국에서 1955년에 출간한 논문의 약 18%만이 팀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2000년에는 약 52%의 논문이 팀에 의해 출간되었다(Wuchty et al. 2007). 반면, 인문학과 예술의 경우에는 1인에 의한 연구수행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어 팀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도 팀에 의한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연계열 및 공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는 일반화되어 있다(김용학 외. 2007). 생물학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93%의 학술논문이 공동연구의 결과라는 것이 관찰되었다(이숙희, 1994). 정신의학 분야의 경우에는 2009-2013년 출판된 90,000여 편 중에서 공동연구가 90%를 차지했다(김은주·남태우, 2015).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협업이 늘어나고 있다. 경영학의 <인사조직연구> 경우에는 2013-2015년에 출간된 논문에서 2인 이상의 공저가 74%를 차지했다(정명호, 2017). 1967-2008년 사이에 <한국행정정보>에 게재된 1,318편 중에서 23%가량이 공동저술이고(박치성, 2012), 2000-2009년 <교육학연구>와 <교육연구>에 실린 논문의 33%가 공동연구였다(이명희·김은주, 2011). 사회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사회학> 및 <경제와사회>에 지난 20년간 실린 공동연구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한준·김수한, 2017). 반면 인문학 분야에서 팀연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관찰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학문분야에 따라 공동연구의 제도화 수준이 다르다는 점은 학제간융합연구팀의 참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팀연구가 일반화된 분야에서 공동

연구 참여는 익숙한 일이지만 단독연구가 지배적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단독연구가 일반화된 분야에 속한 연구자는 팀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전공분야 동료들에게 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2. 학계에서 여성의 지위와 영향력

1) 대학과 연구기관의 여성 대표성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여성의 지위와 영향력이 낮다는 것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우선 대학의 교수직에서 여성 비중을 살펴보자. 여성교수 비율이 1970년 10%, 1980년 11%, 1990년 12%, 2000년 14%, 2006년 1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성이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구자순, 2007).

더 주목할 것은 전공계열에 따른 성별 격차이다. 가장 단적으로 2017년 현재 20,509명의 교수가 있는 공학계열은 여성 비율이 5%에 불과하지만 952명의 교수가 있는 가정계열의 경우 85%가 여성교수이다. 인문사회 분야는 평균 29.3%가 여성, 이공계열은 이보다 더 낮은 19%가 여성교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학분 분과별로는 교육(49%), 예능(39%), 어문(39%), 의학(37%), 약학(37%)과 비교해볼 때 사회(21%), 이학(22%), 체육(21%), 농학(9%), 공학(5%) 계열에서 여성의 교수직 진출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표 1〉 참고). 18년 전인 2001년, 공학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 교수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였다는 것을 보면 특정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공분야에 따른 성별 편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전공분야에서 여성의 학부 및 대학원 전공 선택, 노동시장 진출, 전문직에서의 경력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박영자, 1983; 황수경, 2002; 조혜선, 2003; 박찬웅, 2006; 조아라·박진희, 2010; Weeden et al. 2017).

〈표 1〉 한국 대학에서 여성 교수의 전공분야별 분포와 지위, 2017년

(단위: 명, %)

계열	전임교수의 규모			직급별 여성교수 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어문	5,553	2,167	39%	27%	44%	49%
인문	7,239	2,065	29%	19%	30%	37%
사회	15,946	3,288	21%	11%	23%	34%
이학	10,476	2,331	22%	16%	26%	33%
공학	20,509	1,085	5%	3%	7%	10%
의학	16,459	6,039	37%	22%	37%	58%
교육	4,434	2,163	49%	37%	51%	59%
농학	1,368	129	9%	5%	11%	24%
약학	646	242	37%	31%	39%	48%
체육	1,369	291	21%	21%	21%	22%
예능	5,833	2,259	39%	36%	37%	43%
가정	952	808	85%	92%	82%	7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직위에 따른 성별분포를 통해서도 대학과 학계에서 여성의 영향력과 위상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이 보여주듯이 공학계열에서 여성의 비율은 정교수의 3%, 부교수의 7%, 조교수의 10%를 차지한다. 사회계열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율은 정교수의 11%, 부교수의 23%, 조교수의 34%이다. 가정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 교수의 비율이 낮아진다. 즉, 정교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교수에서 비율보다 낮고, 부교수에서 비율은 조교수에서의 비율보다 낮다. 이는 대학의 교수직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공학과 및 학계에서 여성의 권위와 영향력이 제한된 위치에 있음을 말해준다.

비전임교원을 고려하면 젠더 불평등은 더욱 분명해진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여성은 비정년의 위치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의 교원은 전임(정교수·부교수·조교수)과 비전임(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기타교원)으로 나뉜다. 2018년 전체 교원 225,490명 중에서 35.7% (80,639명)가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 교원 중에서 정교수는 8.9%, 부교수 6.9%, 조교수 12.9%로서 전임교원의 비율은 28.7%이다. 여성 교원의 71.3%는 비전임교원이며, 특히 48.4%가 시간강사의 지위에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여성 교원 10명 중에서 7.1명이 비전임교원이고, 여성 교원의 절반가량이 시간강사라는 것은 대학 사회의 젠더불평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표 2〉 2017년 기관유형별 여성연구개발인력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정규직 인력		비정규직 인력		전체 인력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이공계 대학	266	29,585	15.9	42,179	33.7	71,764	26.4
공공연구기관	186	28,884	17.5	93,342	43.2	38,226	23.7
민간기업연구기관	4,167	137,320	15.6	677	39.3	137,997	15.8
합계	4,619	195,789	16.0	52,198	35.5	247,987	20.1

자료 : 위셋, 2019.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여성 연구자의 낮은 대표성은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모두 비슷하다. 2017년 대학,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에 종사하는 195,789명의 과학기술분야 R&D에 종사하는 인력 중에서 여성은 20.1%를 차지한다(〈표 2〉 참고). 하지만,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5.5%이고 정규직에서는 16%에 불과하다.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여성이 지위가 낮은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표 2〉 참고).

대학의 주요한 보직과 학술단체의 대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도 여성의 낮은 대표성이 나타난다. 2017년 이공계 대학에서 여성 처장의 비율은 9.6%, 대학(원)장은 11.5%, 학과장/학부장은 17.3%이다(위셋, 2019).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학의 리더십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다. 학회장 및 이사진의 성별 구성을 통해서도 학회에서 여성의 위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2012년까지 이학, 공학, 의학, 약학, 농학 등의 85개 분야의 전문학회가 운영되어왔다. 이 단체의 역대 1,646명의 학회장 중에서 여성은 8명뿐이다. 학회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학의 경우 4.5%, 공학 3.1%, 의학 7.1%, 농학 2.8%에 불과하다(위셋, 2019).

대학과 학계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는 융합연구 참여에 제약이 된다. 융합연구에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대학에서 여성교수들은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등과 같은 경력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학제간융합연구보다는 자신의 분과학문에 충실한 학술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학계에서도 정교수들이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위원회에 여성교수들의 참여비율이 낮아서 여성에게 특화된 연구주제가 남성이 다수를 이루는 학술위원회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여성들이 융합연구에 참여할 의도를 가지더라도 남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 연구자보다는 남성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2) 여성 연구자의 사회자본

남성이 주류집단을 형성하는 관리직 및 전문가 세계에서 여성의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은 제한적이다. 여성의 네트워크는 남성보다 협소하고, 전체 사회적 관계망의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장덕진·황정미, 2003; 원숙연, 2012). 대학 및 학계의 상황도 비슷하다. 특히 남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전공분야의 연구자 네트워크는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

전공 내의 성비구성에 따라 젠더관계와 조직 응집력이 달라진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의 동질성 증대는 서로 간에 호감과 신뢰를 촉진하여 집단 응집성을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성들은 조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상이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미국 대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들 사이의 응집력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만으로 구성된 학과에서 남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응집력을 보였지만,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공에서 남성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응집력을 보였다(Wharton & Bird, 1996). 이 질성에서 만들어지는 위협이 다수집단인 남성에게 응집성 강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76개의 작업그룹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성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받는 지원은 여성의 비율과 정적인 관련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게 받는 지원은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South et al. 1987: 274-76). 즉, 남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지원을 받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게 큰 지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 및 공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자들에 관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공동연구자 수가 많고, 공동연구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조혜선·김용학, 2005). 그 결과 여성과학자들은 학술 및 연구와 관련된 공식·비공식 활동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한다(장미혜, 2001; 조아라·박진희, 2010). 학계의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가 남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성 신진학자들이 학술활동 기회와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김은영 외, 2017). “(대형과제) 기획이 요새 학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학회나 위원회를 구성하는거 보면 거의 남성으로 짜여요”(김경희 외, 2018: 140)라는 여성 연구자의 인터뷰는 사회자본의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잘 말해준다.

여성들은 연구기획과 지원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연구과제 참여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얻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분야의 평가위원 2,701명 중 여성은

457명으로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기획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아서 대형과제를 따지 못하고, 연구기획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대형연구개발과제의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김경희 외, 2018: 137-141).

여성의 사회자본이 제한된 것은 단지 남성 연구자들의 배제로 인한 결과만은 아니다.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시간을 부족하게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업무 및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 활동을 제약한다. “전문가 회의가 있을 때 시간 내서 가야하는데 그런 시간을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남편은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달려가도 제가 서포트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당장 달려가면 애들 밥을 누가 챙겨요?”(김경희 외, 2018: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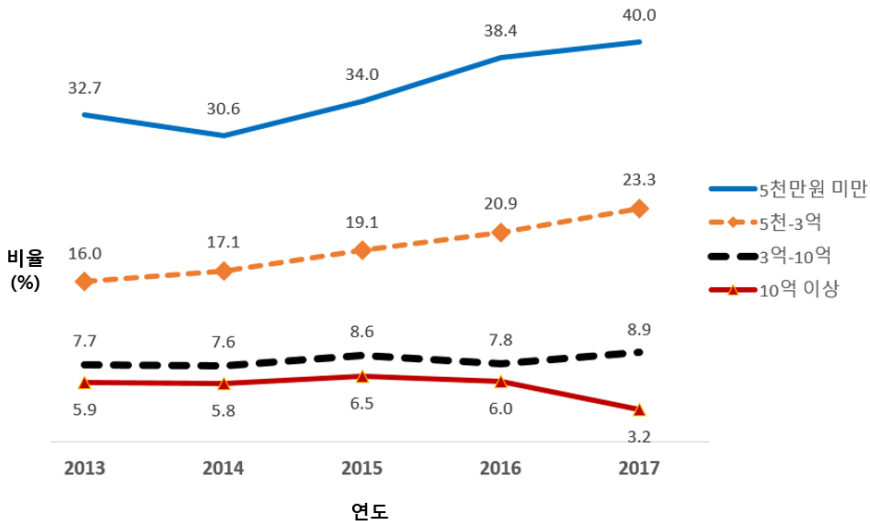
사회자본과 네트워크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연구수행 방식과 규모의 차이로 이어진다. 여성 연구자들은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적은 수의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일인당 연구비도 낮은 편이다. 대규모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과제에서 여성의 참여는 적은 편이다. 여성은 단독연구를 진행하거나 단기 과제 혹은 소수가 참여하는 연구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재정지원을 받는 과제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장미혜, 2001). 반면, 남성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 과제 및 장기 과제에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조혜선·김용학, 2005; 조아라·박진희, 2010).

여성 연구자들의 부족한 사회자본은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지영, 2008). 제한된 사회자본과 네트워크로 인하여 여성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경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 기회, 자원을 얻기 어렵다(Long, 2001; 조혜선, 2003). 연구과제의 규모와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성별화된 사회자본과 네트워크가 여성 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주요한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과 예산배분을 논의하는 연구개발 기획위원회와 관련된 여성 네트워크도 협소한 편이다. 중대형 연구과제의 개발은 사전기획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기획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구과제 주제선정이나 연구비 배분에 영향을 주고, 위원회 참여 경력이 대형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는데 중요한 경력이 된다(김경희 외, 2018).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 연구자는 대형 융합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팀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덜 주어진다.

3) 여성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 비율

연구와 직접 관련하여 대학 및 학계에서 여성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 지표는 연구책임자 비율, 과제의 규모, 연구비 수혜 등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교원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남성교원들의 평균 연구비의 절반보다 적은 액수이다. 또한, 여성교원들 중 9,444명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지만, 이는 남성 연구책임자 34,109명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한국연구재단, 2019).

[그림 2]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을 연구비 규모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이 기간에 소형 및 중형과제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형 과제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연구과제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2013년 32.7%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고, 5천만원-3억원 규모의 과제도 같은 기간 16%에서 23.3%로 증가했다. 반면 3-10억의 중대형 과제는 2013년 7.7%에서 2017년 8.9%로 약간 증가했다. 10억 이상의 대형 과제의 경우 2013년 5.9%이지만, 2017년의 경우에는 3.2%에 불과하다.



자료 : 한국연구재단

[그림 2] 과제규모 별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 2013-2017년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낮고, 대부분 소형 과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관찰된다. 2016년에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된 총 86,164개의 연구과제 중에서 여성 연구책임자는 8.8%에 불과하며, 연구비의 액수가 높아질수록 연구과제 책임자에서 여성비율은 감소한다. 3천만원 이하 과제(26,592개)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11%이고,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과제(32,718개)에서는 9.1%로 줄어든다. 1억이상 10억원 미만의 과제(23,715개)의 6.7%가 여성 연구책임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10억이상의 과제(3,139개) 중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6%이다(위셋, 2018).

연구비 규모와 기간이 큰 이공계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다. 2017년 이공계 대학에서 수행된 총 43,971개의 연구과제 중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10.8%이다. 정부 출연 및 민간기업 연구소를 포함함 전체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연구비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감소한다. 3천만원 미만과제(43,971개)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12.8%, 3천만원-1억원미만 과제 (18,422개)의 10.5%, 1억-10억미만 과제(8,677개)의 8.3%, 10억원 이상의 과제(411개)의 5.1%가 여성 연구책임자이다(위셋, 2019: 63). 이처럼 자연과학 및 공학에서 여성이 연구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소액 및 소형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III. 자료

이 연구의 주요한 자료는 2009-2015년 사이에 ‘학제간융합연구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한 182개 팀과 팀원에 관한 정보이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사이의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4-6인 이상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구성이 인문사회(예술·체육 포함)와 이공계(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중 어느 한 분야 전공자 비율이 팀의 70%를 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융합연구 아젠다를 기획하는 ‘씨앗형’과 실제 융합연구를 진행하는 ‘새싹형’ 중 하나를 골라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소형과제인 씨앗형은 1년간 최대 7천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 받고, 중대형과제인 새싹형은 매년 2억

원 이내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 받고, 차후 2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씨앗형 기획연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차년도에 새싹형 과제로 진입이 가능하며, 씨앗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새싹형으로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한국연구재단, 2015; 임기원, 2011).

2009-2015년 사이에 총 182개 팀이 선정되었고,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2009년에는 전체 151개 팀이 지원하여 23개 팀이 선정되었다.²⁾ 2009년 23명의 연구책임자와 143명의 공동연구원에서 시작하여 2015년까지 총 182명의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전체 1,185명의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자들이 학제간융합연구에 참여하였다. 2010년에는 144개 팀이 지원하여 30개 팀이 선정되었는데, 씨앗형의 경우 신청 95과제 중 24과제가 선정되었고 새싹형의 경우 신청된 49과제 중 6과제가 선정되었다(임기원, 2011). 높은 경쟁률을 고려할 때 융합연구 주제 개발 및 연구팀 구성이 과제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08).

182개 연구팀에 대한 목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고, 개별 연구자에 관한 자료는 기초학술자료센터와 한국연구자정보를 통해 수집했다. 연구자들의 성별, 연령, 전공, 연구경력, 박사학위 수여국가를 수집하였다. 연구자 전공은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체계에서 중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분류 혹은 소분류를 이용할 경우 연구자들의 전공구분이 불명확해지거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분석을 위해 중분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경력은 연구자가 박사학위를 받은 년도를 기준으로 연구경력을 계산했다. 박사학위 수여국가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다.

IV. 융합연구 참여자의 특징

1. 나이 및 경력

〈표 3〉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제간융합연구사업에 참여한 182개 팀을 씨앗형과 새싹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2) 2009년 23팀(씨앗형 21과제, 새싹형 2과제), 2010년 30팀(씨앗형 24과제, 새싹형 6과제), 2011년 32팀(씨앗형 26과제, 새싹형 6과제), 2012년 13팀(씨앗형 11과제, 새싹형 2과제), 2013년 19팀(씨앗형 17과제, 새싹형 2과제), 2014년 38팀(씨앗형 33과제, 새싹형 5과제), 2015년 27팀(씨앗형 21과제, 새싹형 6과제)이 각각 선정되었다.

의 성별, 연령, 경력을 나타낸 것이다. 씨앗형은 1년 동안 7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를 받은 소형과제에 해당하고, 새싹형은 3-5년 동안 매년 2억 원 가량을 지원받는 중대형 과제에 해당한다.

연구비와 연구기간이 1년인 씨앗형에 참여한 917명의 연구자 중에서 여성은 245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며, 연구책임자 153명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7.5%(42명)이다. 씨앗형의 경우 융합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연구책임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중대형 과제에 해당하는 새싹형에 참여한 264명의 연구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3.5%(62명)이고, 연구책임자 29명 중 여성의 비율은 17.2%(5명)이다. 새싹형의 경우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전체 연구 참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은 편이다. 이는 연구의 규모가 클수록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기존의 관찰과 일치한다(장미혜, 2001; 조혜선·김용학, 2005; 장덕희 외, 2009)

〈표 3〉 학제간융합연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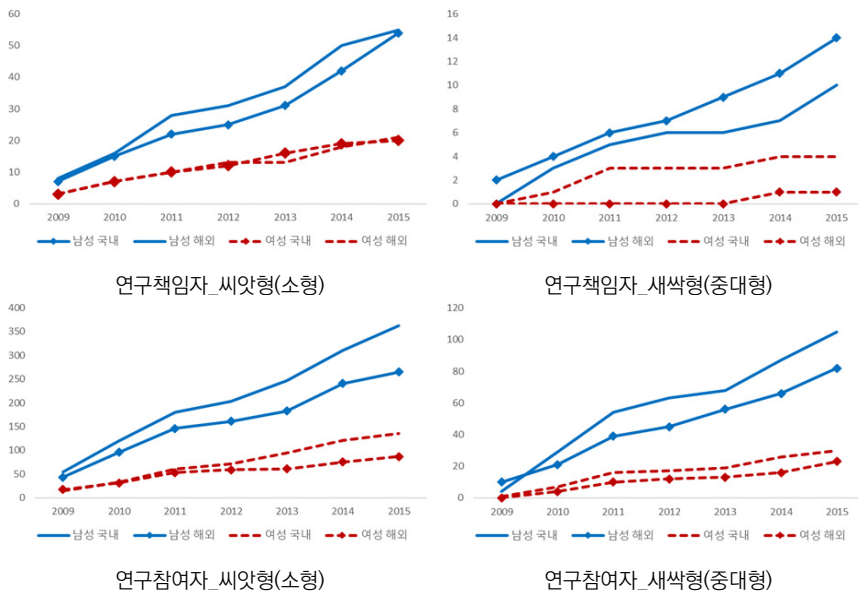
	구분	씨앗형(소형)		새싹형(중대형)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참여자 수	전체	245	672	62	202
	연구책임자	42	111	5	24
	공동연구원	203	561	57	178
연령	전체 평균	45.0	47.9	44.1	48.1
	연구책임자	49.4	50.2	52.0	52.3
	공동연구원	44.1	47.5	49.4	50.2
경력	전체 평균	10.6	13.2	10.9	14.1
	연구책임자	15.3	14.7	18.6	17.3
	공동연구원	9.6	12.9	10.1	13.7

성별에 따라 참여자의 연령과 경력을 살펴보면 씨앗형 연구책임자의 연령은 여성이 평균 49.4세, 남성이 50.2세로 비슷하고, 연구경력도 여성(15.3년)이 남성(14.7년) 보다 긴 편이다. 씨앗형 과제의 공동연구원 평균 연령은 여성(44.1세)이 남성(47.5세)보다 적고 경력도 여성(9.6년)이 남성(12.9년)보다 짧다. 대형과제인 새싹형의 경우에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52.0세)과 남성(52.3세)이 비슷하지만 경력은 여성(18.6년)이 남성(17.3년)보다 더 길다. 새싹형 과제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여성(49.4세)과 남성(50.2세)의 연령 차이가 적지만, 경력에 있어서는 남성(13.7년)이 여성(10.1년)보다 길다.

흥미로운 점은 씨앗형과 새싹형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지만, 연구경력에서는 여성 연구책임자의 경력이 두 유형 모두에서 남성 연구책임자보다 길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더 많은 경력과 연구업적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박찬웅, 2006). 다시 말해 연구책임자로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경력의 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 박사학위 취득 국가(지역)

과제 규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 취득지역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소규모 융합과제인 씨앗형의 경우 학위취득 국가/지역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9-2015년까지 누적분포를 보면 국내박사와 해외박사의 수는 남성해외(55명), 남성국내(54명), 여성해외(21명), 여성국내(20명) 순이다.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크게 존재하지만, 동일한 성별 내 국내박사와 해외박사 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 중대형 융합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성별 및 박사학위 취득 지역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남성해외(14명), 남성국내(10명), 여성국내(4명), 여성해외(1명)로써 ‘남성’이 중대형 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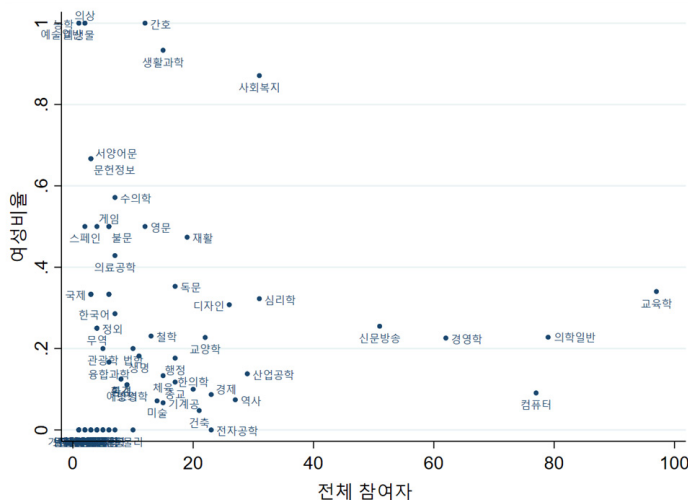


[그림 3] 융합연구 참여자의 박사학위 취득 지역 (단위: 명)

연구참여자의 2009-2015년 박사학위 취득 지역의 누적 빈도는 연구과제의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소형과제인 씨앗형의 누적 참여자 수는 남성국내(363명), 남성해외(265명), 여성국내(135명), 여성해외(87명) 박사 순이며, 새싹형도 구체적 인원수는 다르지만 남성국내, 남성해외, 여성국내, 여성해외 빈도 순위를 보인다. 융합연구팀 참여에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국내 박사학위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에서 대학원 재학과 이후의 활동을 통해 축적한 사회자본이 연구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전공

2009-2015년 사이에 182개의 학제간융합팀에 참여한 1,184명의 연구자는 90개의 상이한 전공배경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별 및 전공에 따른 편차와 집중도가 강한 편이다. 여성참여자는 56개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남성은 90개의 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다. 가장 참여빈도가 높은 상위 15개 전공은 교육학(97명), 의학일반(79명), 컴퓨터학(77명), 경영학(62명), 신문방송학(51명), 사회복지학(31명), 심리학(31명), 산업공학(29명), 역사학(27명), 디자인(26명), 경제학(23명), 전자/정보통신공학(23명), 교양학(22명), 건축공학(21명), 한의학(20명)의 순이다. 대체로 응용력이 높고 팀단위 연구가 일반화된 전공에서 참여자가 많다.



[그림 4] 전공별 융합연구 참여자 규모 및 여성 연구자 비율 (단위: 비율, 명)

주목할 것은 융합연구 참여자 빈도가 높은 전공분야에서 여성참여자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그림 4]는 전공별 참여자 수와 그 전공에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을 합하여 20명 이상이 융합연구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15개이고, 그중에서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 전공은 사회복지학(여성 27명, 남성 4명)이 유일하다. 교육학, 의학일반, 컴퓨터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등과 같이 참여자가 40명이 넘는 전공에서 여성의 비율은 대략 20-30%에 머물러 있다. 총 77명이 참여한 컴퓨터학에서 여성 비율은 9%(7명)에 불과하다. 여성 참여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전공은 전체 참여자 수가 20명 미만이다. 간호, 의상, 생활과학, 농학, 서어서문, 문헌정보, 영문, 불문학 등의 전공이 이에 해당한다.

전공영역에 따라 융합연구 참여의 성별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우선,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학문분야에서 여성학자들은 연구자로서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의문과 도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조아라·박진희, 2010).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수행했던 학문영역을 계속해서 남성들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Zuckerman & Cole, 1975; 박영자, 1983). 남성들은 별도의 증명 없이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획득하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이 자격을 갖춘 행위자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Burt, 1998; 조혜선·김용학,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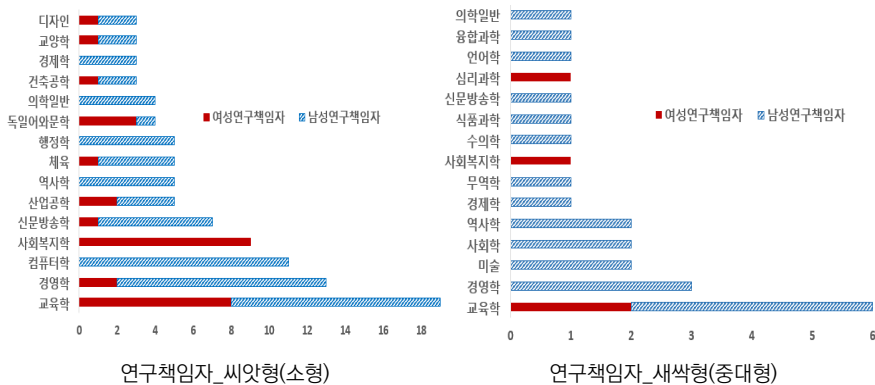
둘째, 대학 및 학계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여성 연구자들의 대응 전략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연구자들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연구업적과 역량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전임 교수의 자격을 획득하기 어렵다(박찬웅, 2006). 남성 중심의 학계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영역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에게 특화된 연구영역으로 자신의 분야를 한정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천선영, 2013).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공에서 여성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분과에서 살아남고 인정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의 범위를 넘어서는 융합연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V. 연구팀의 구성

1. 연구책임자의 전공

융합연구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연구책임자의 전공을 통해 드러난다. 전공영역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경우 21개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남성 연구책임자는 그보다 두 배 많은 42개 학과에 소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제간융합연구 참여자로서 여성이 자신의 대표 영역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수가 남성보다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양적인 차이와 함께 연구책임자의 전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전공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과 여성의 연구가 특정한 전공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가 보여주듯이 상위 15개 전공에서 여성만 연구책임자인 전공은 씨앗형에서 1개(사회복지학)이고, 새싹형은 2개(사회복지학, 심리과학)뿐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여성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9개의 씨앗형 연구팀과 1개의 새싹형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그림 5] 연구책임자의 성별 및 전공, 상위 15개 (단위: 명)

씨앗형의 경우 남성만이 연구책임자인 전공은 상위 15개 중에서 5개(컴퓨터학, 역사학, 행정학, 일반의학, 경제학)이지만, 새싹형의 경우 12개(경영학, 미술,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무역학, 수의학, 식품과학, 신문방송학, 언어학, 융합과학, 일반의학)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학 전공의 남성 연구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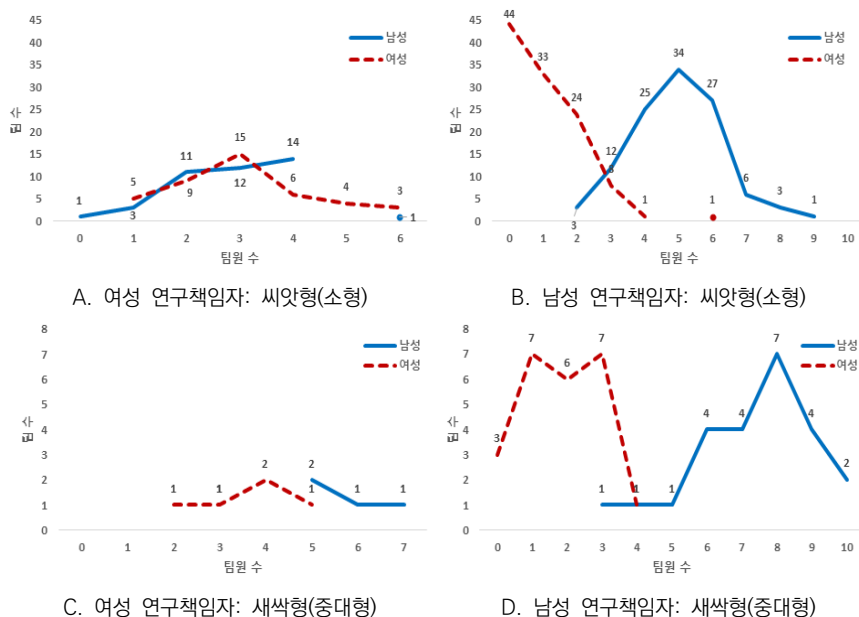
자를 중심으로 11개의 씨앗형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역사학 전공 남성 연구책임자를 통해 각각 5개의 씨앗형 연구팀과 2개의 새싹형 팀이 만들어졌다.

연구과제의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책임자가 가장 많은 상위 15개 전공 중에서 14개의 영역에는 남성 연구책임자가 존재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8개 전공에만 존재한다. 여성 연구책임자를 기준으로 하면 교육학(10명), 사회복지학(10명), 독일어와문학(3명) 등을 전공한 여성이 연구책임자였다. 교육학 전공자는 25개 연구팀에서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그중에서 10명이 여성이고 15명이 남성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10명의 연구책임자는 모두 여성이며, 독일어와문학의 경우에는 4명 중 3명이 여성이다. 컴퓨터학, 신문방송학, 역사학, 의학일반 등을 포함한 다수의 학문에서 남성 연구책임자는 있지만, 여성 연구책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융합연구 참여는 자신의 주된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자신은 무엇을 하는 학자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계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불렸던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견연구자들도 기존의 분야를 벗어나 다른 분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제약은 대학과 학계에서 중간 혹은 그 이하의 지위에 있는 여성 연구자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Phillips & Zuckerman, 2001).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학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자신의 영역을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데(천선영, 2013), 새싹형(중대형) 과제에서 여성이 연구책임자를 맡은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학은 새싹형뿐 아니라 씨앗형(소형) 과제에서도 여성이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융합연구팀의 구성

연구책임자의 성별 및 연구과제의 규모에 따라 팀원의 성별구성이 달라진다.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팀의 성별 다양성을 유지하지만 남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남성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대부분의 팀은 남성을 공동연구원으로 포함하지만, 반면 남성이 이끄는 팀에서는 여성 연구자가 없는 팀이 47개나 된다. 중대형과제의 경우에는 성별 편중이 훨씬 심화된다.



[그림 6] 융합연구팀 성별구성: 연구책임자 성별 및 과제 규모 (단위: 명, 수)

먼저, 소형(씨앗팀) 과제의 팀구성을 여성 연구책임자(그림A)와 남성 연구책임자(그림B)로 나누어 살펴보자([그림 6] 참고).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42개의 연구팀을 살펴보면(그림A) 팀에 포함된 남성의 수는 0-6명의 규모이며, 여성의 수는 1-6명의 범위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0명인 팀은 1개이며, 1명(3팀), 2명(11팀), 3명(12팀), 4명(14팀), 6명(1팀)의 분포를 이룬다. 남성 팀원 수와 연구팀의 수가 정(+)의 관계에 있다. 여성이 1명 포함된 팀의 수는 5개이며, 2명(9팀), 3명(15팀), 4명(6팀), 5명(4팀), 6명(3팀) 등의 분포를 보인다.

반면 남성이 연구책임자인 111개의 씨앗형 연구팀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B). 남성 위주로 팀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참여는 제한적이다. 연구팀에 포함된 여성의 수는 0-4명의 범위에 있고, 남성의 수는 2-9명의 범위이다. 여성이 0명인 팀은 44개이며, 1명(33팀), 2명(24팀), 3명(8팀), 4명(1팀), 6명(1팀)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팀구성은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그림A에서 남성이 0명인 팀이 1개이고, 남성이 4명인 팀이 14개였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여성 팀원 수와 연구팀의 수가 부(-)의 관계를 보인다. 남성팀원의 수가 4-6명의 규모가 되는 팀은 86개(25+34+27)이며, 7명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 팀도 10개(6+3+1)이다.

중대형(새싹형)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팀을 구성하는

다수는 남성이다. 여성 연구책임자(그림C)와 남성 연구책임자(그림D) 모두 여성팀원 규모를 나타낸 점선 그래프보다 남성팀의 규모를 나타낸 직선 그래프가 우측에 놓여 있다.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중대형 과제에서 여성은 2명과 3명인 사례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 4명인 경우 2개 팀, 5명인 팀이 1개 존재한다. 하지만 남성 5명인 팀이 2개, 남성 6명과 남성 7명으로 구성된 팀이 각각 하나씩이다. 남성 연구책임자인 새싹형(그림D)을 보면 여성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남성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없는 경우가 3개 팀이며, 주로 1-3명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팀당 3-10명의 남성이 존재하고, 6-9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연구책임자의 성별과 과제 규모에 따른 팀구성의 젠더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사회자본, 지위, 시간제약의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자본과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자. 네트워크는 연구자에게 향후 기획과제에 대한 ‘정보’(information)를 다른 연구자들보다 앞선 ‘시간’(time)에 얻는 이점을 제공한다(Burt, 1992). 즉, 연구재단의 공고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특정과제에 관한 정보를 먼저 획득함으로써 사전에 준비하고 팀을 꾸릴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도 여성 네트워크의 취약성에 주목한다. 즉, 여성 연구자들은 중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의 연구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과제를 미리 준비하고 팀을 형성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김경희 외, 2018).

둘째, 젠더 지위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대학과 학계에서 여성의 낮은 위치도 여성이 연구책임자가 되거나 팀원을 모집하는데 장애가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여성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임교수에서 정교수를 차지하거나 보직을 맡는 여성의 비율이 낮다. 여성의 낮은 지위는 여성이 연구팀을 운영하거나 다른 연구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행위자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Ibarra, 1992; Podolny & Baron, 1997; 원숙연, 2012). 즉, 남성들은 가능하면 다른 남성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여성 연구자들은 학계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성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할 기회를 모색한다. 이로 인하여 여성 연구자는 남성들에게 배제되고, 같은 여성 연구자들에 제도 될 선호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직장 여성이 경험하는 일과 가정의 이중적 시간제약도 주요한 요인이다. 여성은 일, 가족,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시간압박을 경험한다. “남자들이 기를 쓰고 해도 겨우 서바이벌 할까 말까 한데, 여자들은

가사일도 해야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애 케어도 해줘야 되고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이러니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김경희 외, 2018: 139). 시간제약은 여성이 자신의 일과 관련된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김수한·안리라, 2018).

VI. 요약 및 논의

학제간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연구자들이 융합연구에 참여하는지, 융합연구가 학문의 다양성과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2009-2015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은 182개 학제간융합연구팀에 소속된 1,184명의 연구자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와 팀구성의 특성을 성불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핵심적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연구를 주도하는 전공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은 편이다. 교육학, 일반의학, 컴퓨터학, 경영학의 전공을 가진 연구자들이 각각 60-100명 규모로 참여했다. 그런데 융합연구 참여자 빈도가 높은 이들 전공에서 여성참여자의 비율이 20-30%에 수준이며, 77명이 참여한 컴퓨터학의 경우 여성은 7명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 참여비율이 높은 전공의 경우 전체 참여자 수는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연구책임자의 성별에 따라 전공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은 소형과 대형 모두 연구책임자를 맡은 비율이 높고, 남성이 포괄하는 전공의 수와 범위가 다양하다. 반면, 여성이 대표하는 전공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중대형 과제에서 여성이 대표하는 분야는 더 줄어든다.

둘째,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 비율은 낮은 편이고, 특히 중대형 융합과제에서 여성 대표성은 훨씬 낮아진다. 전체 182명의 연구책임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5.8%이지만 중대형 과제로 한정할 경우 여성의 비율은 17%이다. 융합연구 과제의 규모와 관계없이 여성 연구책임자의 경력이 남성 연구책임자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학계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연구책임자의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력과 자격 요건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연구책임자의 성별과 융합과제의 규모에 따라 팀의 구성이 달라진다. 여성이 연구책임자일 때 성별의 균형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팀이 많지만, 남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남성에게 편중되어 팀이 만들어진다. 여성이 연구책임

자일 때 남성을 포함하지 않은 팀은 1개에 불과하지만,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때 여성을 포함하지 않은 팀은 47개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대형 과제의 경우에는 성별 편중이 훨씬 심화된다. 또한 여성이 포함된 경우라도 팀을 구성하는 다수는 남성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향은 연구과제의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 연구자의 참여 없이도 독자적인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풍부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의 협력을 통하거나 혹은 남성의 네트워크와 지위 자원에 의존하여 연구팀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준다.

이 연구를 통해 학제간융합연구 참여, 연구책임자, 팀구성 등에서 성별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첫째,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고, 전공계열에 따라 성별 분리와 격차가 크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전임의 자리에 있거나 정교수의 지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은 특정한 전공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과 학계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 전공별 성별 분리는 융합연구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된다. 안정된 지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할 여력을 가진 여성이 부족하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학, 보건, 어문학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인정받기 쉽지 않다(조아라·박진희, 2010). 반면, 남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영역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 역할을 담당하는데 유리하다. 여성의 낮은 지위로 인하여 남성들이 주도하는 연구팀에 포함되기 어렵다.

여성 연구자의 협소한 사회자본과 시간제약이 융합연구를 위한 팀을 형성하고, 중대형과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한다. 학제간융합연구와 같이 자신이 속한 분과학문을 넘어선 사람들과의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우에 기존에 형성한 네트워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하지만 여성 연구자들은 남성에 비하여 협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과제를 위해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에게 기대되는 가족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여성 연구자에게 시간제약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시간제약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수한·안리라, 2018). 중대형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위원회 참석은 향후 연구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작동하지만 이와 같은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김경희 외, 2018). 협소한 사회자본은 향후 연구기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하지 못하게 하고, 이는 다시 여성이 대형 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책임자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연구는 학제간융합연구를 통해 여성 연구자가 경험하는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성별다양성을 중시하고 여성참여에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중대형 과제에서 이러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대형과제 연구책임자를 남성이 대부분 점유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성별 다양성이 없는 팀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령 100개의 팀을 선정한다면 남성 혹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팀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이 존재했다면 182개 팀 중에서 남성만으로 구성된 47개 팀이 선정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자본의 협소함을 줄일 수 있도록 여성 연구자를 위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과제에 대한 정보가 정부연구위원회에 참석하는 남성들에게 먼저 전달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연구에 대한 공고와 지원 기간을 더 길게 한다면 여성 연구자에게 연구를 준비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셋째, 연구지원의 기획과 선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기획과 심사단계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화한다면 여성연구자의 전문성과 기여가 높은 주제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궁극적으로 성평등 향상과 학문적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자료접근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연구재단에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학제간융합연구사업에 응모했지만 탈락한 팀들도 포함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발견도 가능할 것이다. 선발된 팀과 탈락한 팀의 특징을 비교하거나, 혹은 연구팀의 구성 및 팀원의 특징이 선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모든 유형의 융합연구 및 융합연구팀을 포괄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선발된 학제간융합연구팀이다. 융합연구가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공학계열 간의 협력과 전공별 일정한 비율을 맞춰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동일 계열의 전공들 사이에서도 융합이 가능할 수 있다. 연구팀의 크기가 4명 이하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혹은 20명 이상의 팀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과 학계에서 정부의 정책 및 규정이 연구의 수행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한준·김수한, 2017). 학제간융합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규정이 실제 융합연구에 어떤 기여와 장애가 되는가를 살펴보는 학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재단에서 규정한 융합연구에 대한 정의 및 평가가 융합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

식과 연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도움을 받는 혹은 피해를 보는 연구 분야, 전공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협업을 이어가는 팀이 있는지 추적해볼 수 있다. 융합연구 참여가 개인의 연구경력에 미치는 영향, 융합연구 참여가 개별연구자가 속한 분과학문 내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인정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융합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자들의 기여가 연구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출판된 논문에서 여성이 몇 번째 공동저자로 인정받는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배분에 있어서도 성별불평등이 발생하는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7). 2017년 교육연감.
- 구자순(2007). “여성교수의 지위와 현황을 통해 본 대학사회의 성정치”. *교육정치학연구*. 제14권 제2호. 7-2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2008).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
- 김경희·김돌순·윤지소·남궁윤영·임유미·손주연·정유진(2018).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V):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용학·윤정로·조혜선·김영진(2007). “과학기술 공동연구의 연결망 구조: 좁은 세상과 위치 효과”. *한국사회학*. 제41권 제4호. 68-103.
- 김은영·김세은·최이숙·김미희·한선(2017). “여성 신진학자들의 고단한 ‘학문하기’ 경험: 강의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2권 제2호. 5-42.
- 김은주·남태우(2015). “정신의학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지식구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317-340.
- 김수한·안리라(2018). “여성관리자의 시간제약과 직장 내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제52권 제1호. 39-75.
- 김형진·김은정·이승연(2018). “학제간 융합연구자의 시행착오 극복을 위한 성공적 융합연구 방법 제안”. *문화와융합*. 제40권 제1호. 183-214.
- 민무숙(2002). “여자박사의 노동시장내 지위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대응”. *한국여성학*. 제18권 제1호. 173-201.
- 박기남(2002). “관리직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성별 직무 분리”. *한국사회학*. 제36권 제6호. 109-135.
- 박영자(1983). “기초과학에서의 우리나라 여성과학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22권. 195-223.
- 박찬웅(2006). “여성 고학력자들의 취업: 생화학 분야 여성과학자 교수임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157-183.
- 박치성(2012). “행정학 학문공동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129-153.
- 송위진·성지은·장영배(201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 *정책연구*. 제2011권 14호.
- 위셋(2018). 2016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과학기술*

- 술인지원센터(WI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_____(2019).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숙연(2012). “공직 내 여성관리자의 현실-여성을 둘러싼 제약-기회-선택의 역학을 찾아서”. *한국여성학*. 제28권 제2호. 75-107.
- 이광호·김승현·최종화·서지영·강지훈·이아정(2013).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명희·김은주(2011). “학술지 내용분석법에 의한 교육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2권 제2호. 81-100.
- 이숙희(1994). “사회·자연과학 분야의 공저자 문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7-50.
- 이중만·최민석(2010). “융합기술전문가의 공동연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 415-428.
- 임기원(2011). “인문사회분야 학제간 융합연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추진 전략과제 발굴 연구”. 문화융복합분야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장덕진·황정미(2003). “여성의 사회적 자본 - 기업조직 내 연결망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59권. 130-160.
- 장덕희·양정모·최윤영(2009). “남녀 연구자에 대한 정부연구비 지원규모와 연구업적의 차이 비교”. *한국행정연구*. 제18권 제3호. 97-124.
- 장미혜(2001). “미취업 여자 박사의 경험과 좌절”. *한국여성학*. 제17권 제2호. 157-177.
- 정명호(2017). “편집위원장 서언: 인사조직 연구자의 직무 재설계”. *인사조직연구*. 제25권. 1-7.
- 조아라·박진희(2010). “한국 여성 과학자의 ‘과학자 되기’에서 보이는 특징”.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제2호. 83-120.
- 조혜선(2003). “과학기술 연구인력 보상체계의 성 차별성”.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 83-107.
- 조혜선·김용학(2005). “과학기술자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제6호. 119-158.
- 천선영(2013). “한국 여성 사회과학자에게 있어 ‘직업으로서의 학문’- 여성 사회과학자들의 ‘무성화/유성화’, ‘경력의 경로화’ 그리고 ‘중층적 소수성’”. *사회와이론*. 제22권 제1호. 323-350.
- 최지영(2008) “여성과학자의 성장과정 연구-전문성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3권 제2호.

153-176.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한국연구재단(2015). 2015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_____ (2019). 2018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한승환·경정운(2011).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한 실증분석: 학문분야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1호. 151-178.

한준·김수한(2017). “평가 지표는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사회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1권 제1호. 1-37.

허은(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241-266.

황수경(2002).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2호. 105-129.

Burt, R. S.(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98). The Gender of Social Capital. *Rationality and Society*, 10(1), 5-46.

Cummings, J. N., & Keisler, S.(2007). Coordination Costs and Project Outcomes in Multi-university Collaborations. *Research Policy*, 36(10), 1620-1634.

Guetzkow, J., Lamont, M., & Mallard, G.(2004). What is Originality in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190-212.

Guimerà, R., Uzzi, B., Spiro, J., & Amaral, L. A. N.(2005). Team Assembly Mechanisms Determine Collaboration Network Structure and Team Performance. *Science*, 308(5722), 697-702.

Ibarra, H.(1992). Homophily and Differential Returns: Sex Differences in Network Structure and Access in an Advertising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 422-447.

Jacobs, J. A., & Frickel, S.(2009). Interdisciplinarity: A Critical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43-65.

Leahey, E., & Moody, J.(2014). Sociological Innovation through Subfield Integration. *The Southern Sociological Society*, 1(3), 228-256.

Leahey, E.(2016). From Sole Investigator to Team Scientist: Trends in

- the Practice and Study of Research Collabor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 81-100.
- Long, J. S.(2001). *From Scarcity to Visibility: Gender Differences in the Careers of Doctoral Scientists and Engineer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Phillips, D. J. & Zuckerman, E. W.(2001), Middle-Status Conformity: Theoretical Restatement and Empirical Demonstration in Two Marke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2), 379-429.
- Podolny, J. M., & Baron, J. N.(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3-693.
- Rhoten, D., & Pфирman, S.(2007). Women in Interdisciplinary Science: Exploring Preferences and Consequences. *Research Policy*, 36, 56-75.
- Scott, W. R.(2014).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deas, interests, and identiti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South SJ, Bonjean CM, Markham WT, Corde J.(1987). Sex differences in support for organizational advancement. *Work and Occupations*. 14(2), 261-85.
- Stokols, D., Hall, K. H., Taylor, B. K., & Moser, R. P.(2008). The Science of Team Science: Overview of the Field and Introduction to the Supplement.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5(2), 77-89.
- Walsh, W. B., Smith, G., & London, M.(1975). Developing an interface between engineering and the social sciences: An interdisciplinary team approach to solving societal problems. *American Psychologist*, 30(11), 1067-1071.
- Weeden, K. A., Thébaud, S., & Gelbgiser, D.(2017). Degrees of Difference: Gender Segregation of U.S. Doctorates by Field and Program Prestige. *Sociological Science*, 4, 123-150.
- Wharton, A. S., & S. R. Bird(1996). Stand by Your Man: Homosociality, Work Groups, and Men's Perceptions of Difference.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ies Series*, 9, 97-114.
- Wuchty, S., Jones, B. F., & Uzzi, B.(2007). The Increasing Dominance of

Teams in Production of Knowledge. *Science*, 316(5827), 1036-1039.

Zuckerman, H., & Cole, J. R.(1975). Women in American science. *Minerva*, 13(1), 82-102.

Abstract

Gender Inequality and Women's Role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Soohan Kim*·Dong Joon Park**·So Yun Park***

Despite rising investments and interests in interdisciplinary studies, there is little research on how people make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s. How do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s shape diversity and inequality in academia? Using data on 182 interdisciplinary teams consisting of 1,184 researchers, we examine gender inequality and women's role in research participations, principal investigators, and team compositions. First, women's representation is low in the majors that lead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 scope of fields in which women participate is limited, with fewer areas represented by women in medium to large projects. Second,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principal investigators is low, especially in medium and large-size projects. Third, principal investigator's gender affects the sex composi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teams. Teams have gender balance and diversity when they are led by female investigators. However, teams are composed mostly of men when they are led by male investigato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disciplinary research may increase gender inequality.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nd research agenda.

Keywords : interdisciplinary research, gender inequality, women in academia, team composition

*Corresponding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Arizona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2차 조사를 사용하여 A-mos 20.0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용 또한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차별경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취업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될 것이며, 또,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여성장애인, 차별경험, 장애수용, 취업여부, 매개효과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meliny@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인구의 취업자 비율인 61.3% 보다 낮으며, 장애인 실업률도 5.1%로 전체인구 실업률인 3.4% 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17).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취업 장애인 중에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74.1%, 여성장애인은 25.9%로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실업률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0.8%p 높게 나타났다(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 그리고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대기업들 중에서 11개 대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여성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5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또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미 교육의 차이에서 예견되었던 문제로(이선우, 2009), 여성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은 취업의 기회를 제한시켜 궁극적으로 취업률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즉, 여성장애인들은 인적자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여성장애인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실정은 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고용, 정치 등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배화옥·김성희, 2004; 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 조금분·백진아, 2018).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편인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는데(김정애, 1999),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주변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상으로, 교육, 노동,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 왔다(이승기·윤상용·서동명, 2016).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가족 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 및 전체사회에서 걸쳐 모든 방면으로 존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선우, 2004).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들보다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장애로 인해 학교생활, 결

1) 뉴스워치, 2017/09/18

혼, 보험제도의 계약 등에 있어서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9).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백은령·오혜경·전동일, 2007),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낮은 취업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무시나 차별, 입학·전학 시 받았던 차별,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교사와 또래친구들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하고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저하시켜 역량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낮은 교육수준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취업의지 저하와 취업기회를 제한시켜 취업률을 낮아지게 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여러 연구들(박미희, 2018; 송진영, 2014; 오혜경, 200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수용은 장애로 인한 상실과 불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는 변화과정을 의미하는데(김동주·고민석, 2012), 이는 장애인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장애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취업의 선결과제로서 취업준비에 앞서 먼저 장애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기 때문이다(김영애·임유진, 2018).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승희(2016), 송지연(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자존감의 상실과 스스로의 가치감이 저하되어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여러 선행연구들(김동주·고민석, 2012; 송진영, 2014;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서 여성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장애수용과 취업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장애수용은 차별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취업 측면에서 차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애수용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경험, 장애인의 취업 그리고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보고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취업에 관한 관련

성, 그리고 장애수용과 취업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차별, 장애수용, 취업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장애인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을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차별적 태도나 인식과 연관되는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으로 하여금 균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시키고 다양한 차별을 발생시킨다(권선진, 2008). 즉,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균등을 막았던 요인은 사회적 물리적 장벽인데,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불평등구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오혜경, 2000).

특히 여성장애인의 차별문제는 상대적으로 남성 장애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로 취약계층 가운데 더욱 차별을 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우월적 사회풍토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문제까지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권명옥·서은정·이한우·이상복, 2000).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성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는데, 이는 상호작용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한다(김정애, 1999). 즉, 여성장애인은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되어 ‘여성’ 과 ‘장애’ 뿐만 아니라 ‘빈곤’, ‘노인’ 등 다양

한 문제에 노출되어 다중의 차별을 겪게 되는 것이다(김하영, 2013).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임은자(2004)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체제 속에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및 결혼과 관련된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실태와 사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오혜경(2006)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절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고통과 차별을 받는 실정이며,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최하위의 약자이고 삶의 질 차원에서 고위험 집단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관심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중차별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차별 이론과 장애차별이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성차별은 성역압적 가부장제와 성별 노동분업이라는 갈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부장제는 남성이 행하는 활동에는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활동은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성별 노동분업은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여성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되어 보조적으로 참여하거나 차별적으로 배치되는 반면에 남성은 생산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음을 가리킨다(배화옥·김성희, 2004). 다음으로 장애차별이란 사회에 속한 장애인을 동화되지 못하고 걸돌게 되게 하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뜻하는데(김정애, 1999), 장애차별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우생학이론, 생산성이론 그리고 편견이론이 있다. 먼저 우생학이론에서는 병약한 자들에 대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반자연적인 행위라 간주함에 따라 장애인을 격리하여 수용하였으며, 그리고 생산성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배화옥·김성희, 2004). 다음으로 편견이론에서는 고용주의 편견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용주는 개인적 편견에 의해 특정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을 싫어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싫어하는 고용격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강동욱, 2002).

2. 여성장애인의 취업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의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74.1%, 여성장애인은 25.9%로서 전체인구 중 남성(57.4%)과 여성(42.6%)의 취업자 비율 대비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 격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남성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7.7%, 여성장애인은 52.3%로 여성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들 중에서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11.4%, 남성장애인은 17.6%로 확인되었다. 또, 비록 취업을 했더라도 여성 장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의 연구들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혜경(2002)은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가구소득, 건강상태, 필요도움 정도, 사회적 차별정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운정·박경수·이석호(2014)는 연령, 학력(중졸·고졸),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중증장애여부, 장애유형 감각장애, 만성질환여부, 자격증 보유여부가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김정아(2013)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혼인상태, 연령, 수급여부,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환, 지역, 일상생활능력 도움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차별과 취업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에 불리하고 취약한 실정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은 생산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생각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데, 즉,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등 노동비용의 증가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다(이승기·윤상용·서동명, 2016).

더욱이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도 무능력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으며(Barnes et al., 1999), 또 여성장애인은 용모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신체적 및 정서적 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이선우, 2004). 이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2.8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유동철(2000)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보다 장애인이 노동력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특징에 비해 장애인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의 차별과 취업 간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송진영(2014)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취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준모(2016)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취업 여부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미희(2018)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차별경험이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하경희·성준모(2012)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요인으로 사회적 낙인 및 차별경험을 언급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차별과 취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데, 오혜경(2002)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차별 정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차별, 장애수용, 취업 간의 관계

장애수용은 장애에 대한 적응과 관련 있는데(Li & Moore, 1998), 장애로 인한 상실과 불편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는 변화과정을 뜻하는 것으로서(김동주·고민석, 2012), 장애가 있는 신체적 조건에 중점을 두지 않고 타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성희, 2000).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겪

는 사회적 차별은 자신들의 삶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왜냐하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게 되며(강미영, 2009), 그리고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차별경험이 언급되고 있으며(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선행연구들을 통해 차별이 장애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주·고민석(2012)은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취업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이 장애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밝힌 연구들이(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정승원, 2012; 최서경, 2018) 보고되고 있다.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고 안정되고 또 쉽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이채식·김명식, 2012). 이는 장애수용도가 장애인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권충훈·최희철, 2016; 김하경, 2002; 정승원, 2014)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로, 장애수용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이 높아져 성공적인 사회 적응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장애수용과 취업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유승희(2016)와 송지연(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은 취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영애·임유진(2018)은 장애인의 높은 장애수용도가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켜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밝혔으며, 또 이채식·김명식(2015)은 중도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장애수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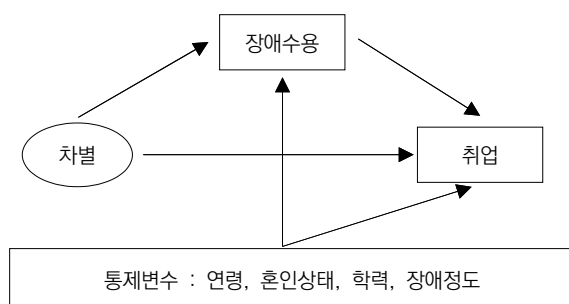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들을 근거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취업 간의 관계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차별과 장애수용 사이에서 그리고 장애수용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수용이라는 변인이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개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들 중에서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으로,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송진영·김형모, 2014)가 있을 뿐이다. 특

히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경험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²⁾

2.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2차 조사를 활용하였다. 2차 웨이브는 1차 웨이브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시계열적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그리고 정책연구형 패널조사로 구축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존 조사와 명확한 차별화를 꾀하였으며, 경제활동과 관련된 표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접목시켰는데, 2017년에는 패널조사의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공분산 처리를 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단면 구조를 설계 및 구축하여 2차 웨이브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8).

본 연구는 2차 웨이브 2차 조사가 완료된 총 1,468명의 여성 장애인 가구원 중에서,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무응답한 28명을 제거한 1,440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취업여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취업여부는 취업=1, 미취업=0으로 더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독립변수: 일상생활 차별경험

독립변수인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으로 차별경험 있음=1, 차별경험 없음=0으로 더미화하여 측정하였다.

3) 매개변수: 장애수용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장애수용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장애수용 지표에서 사용된 장애수용은 총 12개의 문항(장애인식 9문항 + 장애극복 3문항)으로 구성³⁾되어있다. 장애인식은 Kaiser, Wingate, Freeman & Chandler (1987)가 개발한 장애수용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장애극복은 백영승 등(2001)이 개발하고 강용주 등(2008)이 타당도를 검증한 장애극복 요인을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들 중에서 1, 3, 7번 문제는 장애수용과 관련된 부정적 문항에 해당되어서 역코딩을 한 후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문항들을 모두

3) 각각의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식에 관한 문항들은 ①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②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다. ③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속상하다. ④ 나는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⑤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 ⑥ 장애 자체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⑦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⑧ 장애 자체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 ⑨ 인생은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장애극복에 관한 문항들은 ⑩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만큼 재미있는 일이 많다. ⑪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⑫ 장애 때문에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한 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20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0$ 으로, 김자영(2018)의 연구의 경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921$ 로 확인되었다.

4) 통제변수: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정도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정도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에서 제시된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5, 대학원졸=6을 재구성하여 고졸 미만=0, 고졸 이상=1로 더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으로 부여하였고, 장애정도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에서 제시된 중증=1, 경증=2를 경증=0, 중증=1로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령(김나래, 2017; 오혜경, 2002; 유승희, 2016), 학력(유승희, 2016; 송지연, 2018), 혼인상태(김나래, 2017), 장애정도(유승희, 2016; 김영애·임유진, 2018; 송지연, 2018)는 장애인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유승희, 2016), 학력(노승현, 2007; 유승희, 2016; 정승원, 2012), 혼인상태(정승원, 2012), 장애정도(노승현, 2007; 유승희, 2016; 정승원, 2012)는 장애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장애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장애수용과 종속변수로 설정한 취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을 정리해서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종속변수	취업	미취업=0, 취업=1
독립변수	일상생활 차별경험	차별경험 없음=0, 차별경험 있음=1
매개변수	장애수용	장애수용척도(1~5점 문항)+ 장애극복 요인(1~5점 문항)
통제변수	연령	연속변수
	학력	고졸미만=0, 고졸이상=1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장애정도	경증=0, 중증=1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우선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여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해서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학력은 고졸이상이 63.9%로 고졸미만(36.1%)에 비해 1.77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배우자 없음이 54.2%로 배우자 있음(45.8%)에 비해 약간 많으며, 장애정도는 경증이 65.2%로 중증(34.8%)에 비해 1.8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차별경험 있음이 63.7%로 차별경험 없음(36.3%)에 비해 1.7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취업여부는 미취업 상태가 64.9%로 취업상태(35.1%)에 비해 1.8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은 평균 47.15(표준편차 13.33)세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로 설정한 장애수용은 평균 37.94(표준편차 10.84)로 확인⁴⁾되었는데,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Log 함수로 변환해서 측정하였다.

4) 장애수용은 장애인식 9문항과 장애극복 3문항이 합산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항들은 1~5점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수용 척도의 만점은 60점으로 확인된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N=1,440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학력	고졸미만	520	36.1
	고졸이상	920	63.9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780	54.2
	배우자 있음	660	45.8
장애정도	경증	939	65.2
	중증	501	34.8
일상생활 차별경험	차별경험 없음	522	36.3
	차별경험 있음	918	63.7
취업여부	미취업	935	64.9
	취업	505	35.1
연령(세)	(평균=47.15 표준편차=13.33, 최소값=19.00 최대값=68.00)		
장애수용	(평균=37.94, 표준편차=10.84, 최소값=12.00 최대값=108.00)		
Ln(장애수용)	(평균=3.61, 표준편차=0.23 최소값=2.48 최대값=4.68)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표 3〉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차별은 장애정도($r=.244$)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Ln(장애수용)($r=-.202$), 취업여부($r=-.175$), 연령($r=-.131$), 학력($r=-.062$), 혼인상태($r=-.165$)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n(장애수용)은 취업여부($r=.159$), 학력($r=.134$), 혼인상태($r=.131$)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연령($r=-.055$)과 장애정도($r=-.132$)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취업여부는 학력($r=.159$)과 혼인상태($r=.113$)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장애정도($r=-.195$)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은 혼인상태($r=.304$)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학력($r=-.335$), 장애정도($r=-.237$)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는 장애정도($r=-.268$)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차별	Ln(장애수용)	취업여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장애정도
차별	1						
Ln(장애수용)	-.202**	1					
취업여부	-.175**	.159**	1				
연령	-.131**	-.055*	-.026	1			
학력	-.062*	.134**	.159**	-.335**	1		
혼인상태	-.165**	.131**	.113**	.304**	.021	1	
장애정도	.244**	-.132**	-.195**	-.237**	-.046	-.26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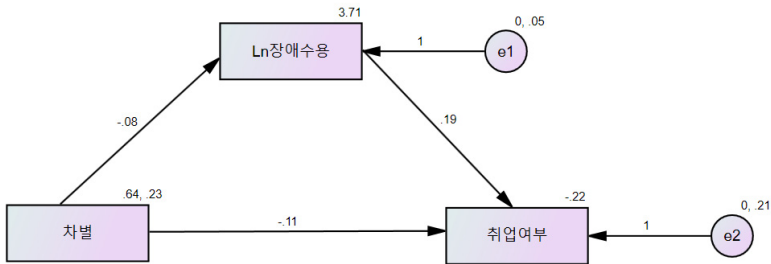
*p<.05, **p<.01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표 4〉와 같다. 먼저 차별이 Ln장애수용($B=-.084$, $p<.001$)과 Ln장애수용이 취업여부($B=.188$,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차별이 취업여부($B=-.110$,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도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차별경험이 있을 때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고, 취업할 확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장애수용($B=-.002$,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며, 마찬가지로 학력($B=.040$, $p<.01$)과 장애정도($B=-.039$, $p<.01$), 혼인상태($B=.052$, $p<.001$)가 각각 장애수용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력($B=.114$, $p<.001$)과 장애정도($B=-.147$, $p<.001$), 혼인상태($B=.053$, $p<.05$)가 각각 취업여부에 이르는 직접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 때, 장애정도가 경증일 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아지며, 그리고 학력이 높을 경우, 장애정도가 경증일 때, 배우자가 있을 때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차별경험은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장애수용 또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차별경험은 장애

수용을 거쳐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매개효과 분석결과

〈표 4〉 분석결과⁵⁾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	C.R
차별 → Ln 장애수용	-.084	-.172	.013	-6.523***
Ln 장애수용 → 취업여부	.188	.092	.054	3.511***
차별 → 취업여부	-.110	-.111	.026	-4.179***

***p<.001

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총효과가 -.126, 직접효과가 -.120, 그리고 간접효과의 값은 -.006으로 나타났다. 이때 차별경험과 취업여부 두 개의 변인 사이에서 장애수용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⁶⁾, 장애수용은 차별경험과 취업여부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을 거쳐 취업여부에 간접적

5)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다.

6)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의 BC 법이 하한과 상한사이(-.155 ~ -.064)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으며,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이 하한과 상한사이(-.026 ~ -.010)에 마찬가지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장애인이 차별경험이 있을 때,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며, 이를 토대로 취업할 확률이 높아짐을 뜻한다.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별→장애수용정도→취업여부	-.126 [*]	-.120 [*]	-.006 ^{**}

*p<.05, **p<.01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때,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여러 연구들(박미희, 2018; 오혜경, 2002)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때,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김동주·고민석, 2012;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정승원, 2012; 최서경, 2018)의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아지면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수용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유승희(2016), 송지연(2018)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며, 이를 토대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에서 차별을 당할 경우 위축감 및 소외를 느끼며 또 자존감의 하락 등으로 스스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또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때,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성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김정애, 1999), 이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우, 2009).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가족들로부터 차별과 폭력을 당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근거(김성희 외, 2017)할 때, 여성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예방 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의 장애연구와 이론은 주로 남성 장애인의 경험을 다루어 왔는데(김미혜·장숙, 2014; 윤명숙·박현정, 2011),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또, 전통적으로 여성장애인은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외면을 당해 왔는데 이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과제이다(오혜경, 2006). 여성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남성장애인들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비율이 높으며⁷⁾, 빈곤에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감소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 결과에 근거하여 차별경험에 의해 초래된 여성 장애인의 취업의 어려움 및 미취업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수용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차별경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취업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리·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될 것이며, 또,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애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장애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채식·김명식(2015)의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대감을 확인하고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수용이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상담

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17).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동료상담에서 문제의 주체는 당사자로서, 집단동료상담은 5~8명 정도의 인원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주제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며,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경청함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cafe.daum.net/suwonil).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미취업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차별경험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별 차별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장애수용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 장애인들의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록 차별경험이 없거나 차별의 정도가 낮은 여성 장애인일지라도 장애를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취업의지를 고취시켜 취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⁸⁾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성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장애수용 프로그램도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한계상 여성장애인이 경험한 차별을 일상생활 차별경험 여부로 살펴봄에 따라 차별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인지한 교육,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겪은 차별의 정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교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 전문상담,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등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참고문헌

- 강미영(2009). 정신장애인이 인지하는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 강동욱(200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제15권, 7-32.
- 강용주·박자경·구인순(2008). 자아인식·자아수용검사 타당화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권명옥·서은정·이한우·이상복(2000). “장애를 지닌 여성인력에 대한 취약구조 분석과 지원체계”. 再活科學研究. 제16권 제1호, 33-64.
- 권선진(2008).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지각과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8권 제1호, 81-104.
- 권충훈·최희철(201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5권 제2호, 149-172.
- 김나래(2017). 중고령 경증 신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교.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주·고민석(2012). “직장 내 차별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장만족과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제22권 제2호, 5-29.
- 김미혜·장숙(2014). “뇌졸중 남성 장애인의 중도 장애 경험”. 재활복지. 제18권 제3호, 47-72
- 김성희(2000). 장애발생시기와 귀인양식이 장애수용과 우울반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성희·이연희·오옥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애·임유진(2018). “장애수용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취업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9권, 108-126.
- 김자영(2018).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3호, 363-391.
- 김정아(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경(2002). “지체부자유학생의 장애수용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지체. 중북. 건강 장애연구. 제40권 제0호, 23-38.
- 김하영(2013).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승현(2007). “노령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1권 제1호, 30-60.
- 박미희(2018).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인적자본 및 차별 요인의 영향.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화옥·김성희(200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호, 61-83.
- 백영승·김성희·유미·김춘수(2001). 자아인식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백은령·오혜경·전동일(2007).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7권 제1호, 223-248.
- 성준모(2016).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요인”. 장애와 고용. 제26권 제3호, 125-148.
- 송지연(2018).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취업의 관계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 검증.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김형모(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1호, 199-225.
-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2019.09.03.).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cafe.daum.net/suwonil”에서 2019.09.03. 인출.
-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7권 제3호, 89-112.
- 안태희·김영애·이금진(2018). 장애여성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오혜경(2000).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리뷰. 제5권 제1호, 53-72.
- _____(200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

- 사회정책. 제13권, 113-146.
- _____(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11권, 27-74.
- 유동철(2000).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73-108.
- 유승희(2016).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6권 제3호, 428-448.
- 윤명숙·박현정(2011). “장애인 문제음주자의 삶의 경험”. 재활복지. 제 15권 제1호, 149-178.
- 이선우(2004). “장애인복지정책에 나타난 성차별”. 사회복지정책. 제18권, 247-272.
- _____(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파주시: 집문당.
- 이승기·윤상용·서동명(2016). 장애인복지론. 서울: 신정.
- 이채식·김명식(2012).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1호, 29-54.
- _____(2015). “중도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2호, 5-27.
- 임은자(2004).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성폭력·가정폭력 및 결혼관련 실태 및 사례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6권, 183-2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5.20.). “차별행위.”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420#P4>에
서 2019.05.20. 인출
- 정승원(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4호, 323-350.
- _____(2014).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1호, 167-197.
- 조금분·백진아(2018). “융복합 시대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2호, 133-140.
- 최서경(2018).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정·박경수·이석호(2014).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3호, 123-14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9). <https://edi.kead.or.kr>.

- 하경희·성준모(201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장애유형 간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6권 제2호, 131-158.
- Barnes. C., G. Mercer. & T. Shakespeare.(1999).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Kaiser, S. B., Wingate, S. B., Freeman, C. M., & Chandler, J. L. (1987).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32(1), 51-58.
- Li. L., & Moore, D.(1998).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its Correl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1), 13-25.

Abstract

Discrimination Experience Effects on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 Wome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Kim, Jayoung*

This study investigated discrimination experience effect on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women and analyzed whether the effect is mediated by disability acceptance. For the research we used the 2st year data of second wave 2017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using Path analysis with A-MOS 20.0.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iscrimination experience is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employment status as well as disability acceptance. And disability acceptance is also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employment status.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between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employment status.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unemployed disabled women with a high degre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allows them to accept their own disabilities as they are and form a positive self-worth sense.

Keywords : disabled women, discrimination experience, disability acceptance, employment status, mediating effect

*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일상생활에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구은정**

초 록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밝혀낸 기존연구는 가사노동의 정치경제적 효용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경제적 가치가 분명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공론화되고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은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연구는 두 세대 (초기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구술자 72명의 심층인터뷰 텍스트로, 행위자가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분석했다. 이때 행위자가 체현한 가치란 귀납적 분석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몸의 사회학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이론을 인식론적 틀로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산업화세대는 “가치, 무슨 가치, 난 몰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라는 구술이 드러내듯, 여성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진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저발전으로 인한 전국가적 빈곤 상황에서, 가사노동을 포함한 여성의 노동 없이는 가족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솔직히 돈으로 환산 못하죠”란 구술은 몸에 체현된 가치를 드러낸다. 이에 반해, 둘째, 민주화세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와 미디어 보도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인지한다. 하지만 인지와 다르게 “스스로 저는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 같아요”란 구술이 밝히듯, 일상생활에서 구술자는 그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 한편 셋째, 민주화세대는 노동으로 바빴던 부모와 부재했던 관계를 성찰하면서, 자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위안 등을 줄 수 있기를, 즉 가사노동의 정서적 가치를 욕망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가 밝힌 가사노동 가치와 행위자가 일상에서 체현한 가치의 어긋남을, 그리고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넘어 정서적 가치에 대한 행위자의 욕구를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구술자들이 주로 가사노동 제공자로 가사노동 수혜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체현한 가치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주제어 : 가사노동, 체현된 가치, 세대, 정서적 가치, 물질적 가치

* 본 논문은 저자의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시간강사(eun2228@hanmail.net)

I. 문제제기

근대사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주어진 역할규범, 이에 따른 성별분업은 젠더불평등의 핵심요소로 여겨졌다(김정선, 1994). 때문에 어떻게 가사노동/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는 지난한 연구주제였다. 이런 맥락에서,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 여성들이 해왔던 ‘일’들을 근대적 노동개념으로 규정하는 가사노동 논쟁(Gardiner, 2000; Himmelweit and Mohun, 1977; Kain, 1993; Molyneux, 1979), 가사노동의 경제/물질적 가치를 환산한(권태희, 2006; 김정희, 1993; An, 2012; Budlender, 2008; Yoon, 2014) 기존연구들은 가사노동을 사적영역에서 끄집어 내 공적영역의 의제로 상정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부불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한 연구는(Budlender, 2008), 그런 부불노동을 주로 담당해왔던 여성들의 경제적 기여를 국가 경제의 맥락에서 드러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직을 가정, 시장, 정부, 그리고 비영리 영역으로 재구성한 돌봄 다이아몬드란 개념틀을(Razavi, 2007) 활용한 연구들은, 돌봄에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이 많은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을 가시화해(An, 2012), 적절한 정부정책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가치란 시장에서 다른 재화로 교환되는 것이 아닌 경우, 생활에서 향유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행위자들에게 실현된다. 환산된 물질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향유하지 못할 경우, 행위자들에게 가사노동 가치란 일상의 삶과 관계없는 수치에 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공론의 장에서 인정해도, 일상의 삶에서 행위자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위자에게 가사노동은 별 의미 없는/가치 없는 행위일 수 있다. 이때 의미/가치 없는 행위로서의 가사노동 수행은 개인과 가족의 안녕(well-being)을 간과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과연 온전히 물질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혹 물질적 가치에 과하게 둔 초점이 비물질적 가치를 가린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 가령, 부불돌봄노동의 가치가 인도의 경우 GDP의 63%, 한국의 경우 29%를 차지하는데, 저자의 설명처럼, 부불돌봄노동의 가치가 무시할 수 없게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우선적 의미가 있다(Budlender, 2008: 37-38). 한편 시

장경제가 저발전된 곳에서 부불돌봄노동이 물질적 삶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곳에서 돌봄노동은 더 가치 있는 노동이란 다소 모호한 딜레마를 낳는다. 반면,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전해 부불돌봄노동의 비율이 더 줄어든다면, 이는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맥이 닿는다. 그러나 이때, 가사노동이 사회화/시장화 될수록, 가족의 개인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즉 국가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돌봄노동이 제공될 때, 각각의 돌봄이 온전히 상호 대체가능한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이런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현 상황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긴 어렵다. 단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일상생활에서 행위자들이 몸으로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해석으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가정에서 제공/향유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몸으로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낮설다. 따라서 논의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이 글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

첫째,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이 금전적 보상 없이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을 번영(flourishing)시키기 위해 하는 노동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가사노동도 포함한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 가사노동은 돌봄노동을 포함한다. 일상적인 집안 일 즉 청소, 음식, 빨래 뿐 아니라, 직접적 돌봄, 친척관계, 아이 학교 모임 등 가족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노동 등을 모두 포괄한, 네이스미스(Neysmith, 2012)의 공급노동(provisioning work) 개념과 동일하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구술자들의 이야기에서 돌봄은 대부분 가사노동과 얹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가정의 유지에 초점을 둔 기존 가사노동의 정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은, 돌봄에 초점을 두는 후기자본주의 사회란 맥락이다. 이때 돌봄은 둘째,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서적 접촉제로(Himmelweit, 2007: 583),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belongingness)을 높여 개인을 번영(flourishing)시킨다. ‘돌봄’의 일반적인 목적은 인간 또는 사회의 재생산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이다(Sevenhuijsen, 2004: 35). 이렇듯 육체적 존재의 유지를 넘어 정서적 안정, 풍요로움과 관계되는 돌봄은 가치로서의 돌봄이다. 이때 돌봄 행위와 돌봄 가치는 구분된다. 셋째, 돌봄 행위란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몸을 씻겨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등 직접적인 행위로서의 돌봄이다. 반면 돌봄 가치란 행위에 담긴 마음, 즉 애정·관심·사랑 등을 주고받으면서

발현되어 개인을 번영시키는(flourishing) 요소다. 가령, 자기 집을 청소하는 행위는 지불가사노동자가 그 집을 청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청소란 행위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청소란 행위에 담았을 때, 청소 행위는 돌봄의 가치를 포함한다. 넷째, 이 글에서 ‘가치’란 행위의 동기이자 목적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 하는데(Mead, 1967), 이때 가치는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이다(Rosso. et al., 2010). 가령 돌봄 행위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서 지불돌봄노동을 할 수 있다. 이때는 그 노동의 대가, 즉 물질적 가치가 목적이자 동기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돌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돌봄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돌봄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의 돌봄 행위는 이렇게 다른 가치들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의미로 행위자에게 구성될 수 있다.

한 노인 여성구술자는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두고 노점상을 할 때 자녀가 방과 후 집밖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놀 수 있도록 매일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일하러 나갔던 경험을 이야기 한다. 이 이야기에서 구술자가 준비한 음식에는 자녀에게 물질적 영양을 제공하는 가사노동,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간접적) 돌봄노동, 자녀의 원활한 친구관계를 위한 지원노동, 방과 후 시간을 홀로 보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돌봄 가치) 등이 모두 얹혀있다. 주말에만 집에 들어가는 한 남성구술자는 평상시 못했던 청소 음식만들기 등 집안일을 주말에 전적으로 하면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으로 표현한다. 이 경우 구술자는 가족에 대한 돌봄/애정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가사노동을 음식만들기, 청소, 돌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는지,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르게 가사노동을 담당하는지, 할애된 시간에 따라 물질적 가치를 환산하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이 향유하거나, 향유하고픈 가치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이 연구관심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이 가사노동을 수행할 때 담는 의미, 이를 통해 가족과 나누는 관계 등이 분석초점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체현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인식론적으로 몸의 사회학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개념을 살펴본다. 둘째는 연구방법과 구술자들이 처한 사회 정치경제적 맥락의 서술이다. 셋째, 행위자들이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다. 넷째, 결론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이 글이 현 후기산업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한편 본 연구 구술자들이

모두 가사노동 제공자이고 두 세대만을 중심으로 했던 한계가 있다. 이에 가사노동 수혜자들 (자녀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다른 세대에 대한 후속연구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II. 인식론적 입장

1. 몸으로부터의 사회학

기존 서구 철학에서 구조/행위자, 정신/육체, 남성/여성, 이성/감성 등, 세상과 존재,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대치시키는 이원론에 대한 비판으로 상징적 상호작용, 현상학, 해석학, 몸의 사회학, 일상생활의 사회학 등 새로운 인식론적 입장이 부상하였다(김남옥, 2012). 이 새로운 철학은 외적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외적 조건에 대한 해석, 해석에 기반한 행위, 행위의 개입으로 초기 조건과 변형되는 조건, 일상에서 행위자의 반복적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 규범 등을 인식론의 지평으로 호명해낸다(Bendelow & Williams, 1998; Heller, 1984; Mead, 1967; Shilling, 2004). 이렇게 행위자를 인식의 한복판으로 끌어냄으로써 행위자의 “몸은 세계-내에 뿌리내리고 주어진 상황을 체험해가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지평이 되는 세계에도 향한 존재가” 된다(김남옥, 2012: 295). 노령인구의 증가와 소비 (건강·미용 산업)의 중심으로 몸이 부상하면서, 생물학적인 몸 자체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가했다(Shilling, 2004: 26-33). 그러나 몸 자체에 관한 것 (about bodies)보다, 경험을 체현한 몸으로부터(from lived bodies) 사회적 현상을 이론화하는(Bendelow & Williams, 1998: 3) 인식론으로, 이 연구에서 몸의 사회학은 의의가 있다.

돌봄의 행위 돌봄의 가치와 관련해, 몸은 이 둘을 직접 체현한다. 가령, 한 끼 식사는 영양소와 칼로리로 바로 몸에서 소비되고 몸/신체/육체의 유지·발전에 도움을 준다. 한편 돌봄의 가치는, 애정·사랑·돌봄을 나누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비슷한 뇌파를 형성해 유대감을 높이거나, 행복 호르몬을 방출하고, 말초신경을 강화하며 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키며(Fredrickson, 2013: 39-62), 몸에 체현된다. 즉 가치를 향유하는 순간은 사라지지만, 더 친밀해진 유대감으로 건강해진 몸으로 각자의 정서적 경험으로 몸에 새겨진다.

물론 행위자들이 가치를 향유하는 매순간을 인지하고, 몸으로 느끼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그 가치는 시나브로 몸에 '체현'된다. 이때 외적 조건의 유사성에 따라 각 세대의 경험은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고, 몸에 체현된 경험은 사회성을 획득한다(Shilling, 1997). 이렇게 획득된 사회성에 따라 개인의 행위선택/지향은 곧 집단 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으로 작동해(Davis, 2003: 132-143), 사회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때 돌봄의 가치는 비물질적 가치다. 초기 비물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었던 돌봄 개념은 별다른 논의 없이 돌봄노동이란 어휘와 호환되고, 가치와 관계없이 돌보는 행위로 환원되었다. 또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환산 등으로 연구관심이 옮겨지면서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초점은 더욱 더 비가시화 된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근대 모성에 기반한 성별분업과 돌봄, 사랑, 애정이란 가치들이 얹히면서, 성역할에 의해 강제되는 사랑의 가치와 돌봄의 비물질적 가치가 동일시되면서, 여성주의 연구에서 돌봄의 비물질적 가치는 논외되었다. 이제 초기 돌봄 이론을 버렸던 문제의식, 즉 교환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재숙고해야 한다. 이때 행위자가 몸으로 체현한 돌봄의 비물질적 가치를 주목할 수 있다.

몸이 체현한 것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때론 행위자가 조건을 인지·성찰하기 전, 먼저 몸으로 겪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조건을 몸으로 먼저 겪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전세대가 형성한 문화 속에 태어남을 의미한다(Heller, 1984). 즉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기 전까지 인간은 이전세대의 규범을 몸으로 우선 습득한다. 이전세대가 형성한 규범을 몸으로 반복하던 행위자는 그 반복이 자신의 인식과 어긋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Wehrle, 2016: 69), 성찰하고 행위를 (반복하던 수정하던) 다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전 세대의 규범은 유지되거나 변형된다. 그러나 생애초기 습득된 경험과 가치관은 개인의 인식과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김은정, 2012: 73)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만하임(Mannheim, 1952: 179)에 따르면, 보통 17세 정도 되어서야 어떤 것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경험이 세대의식 형성의 기초가 되고 생애를 관통해 유지된다(전상진, 2004: 35). 개인의 생애사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개체의 개별성도 무엇을 성찰하는데 중요하게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성찰과 행위 수정을 통해 개별성이 발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여성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란 규범은 초기근대에서 후기근대로 흐르면서 약화된다. 그러나 이 연구 모든 구술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규범은 구술자들이 몸으로 겪은 습속이다. 이때 당연한 행위가 창출하는 가치는 대체로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다. 당연한 행위는 성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초기산업화세대는, 자녀세대를 통해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상호작용하지만, 그들의 인식과 행위는 대체로 변하지 않고 반복된다. 이 연구의 민주화세대는 이전세대의 규범을 자라면서 몸으로 겪었다. 그러나 평등사상이 대두되는 시기 청년기를 겪으면서, 자신이 가진 평등의식과 몸의 습속은 충돌하고, 행위는 (개개인 삶의 맥락에 따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변형된다.

2. 가치에 기반한 경제: 다원주의 경제학¹⁾

가치에 기반한 경제란, 기존의 일원론적 물질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착하고 향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적 삶의 본질(good life)에 이를 수 있다는 개념이다(Klamer, 2017). 클라머(Klamer, 2017)는 물질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집을 예로 든다. 집은 가격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표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을 떠올릴 땐 그 공간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 그들과의 관계, 일상의 기억들,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집이란 공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느낀다. 때문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얼마짜리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향유할 삶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의 가치는 얼마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가족과 영위하는 일상의 가치로 향유되고 몸에 체현된다. 이 가치는 물질적 가치처럼 명징하게 표현되지 않아 그동안 학문적으로도 정부정책에서도 논외 되었다. 클라머는 일상의 삶에서 뿐 아니라, 정부정책도 물질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포함할 때 정책 대상자의 삶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의한다.

돌봄과 관련하여, 반 스타베런(Van Stavelen, 2001)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일원론적 가치체계를 비판하면서, 인간이 경제활동으로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를 이론화했다. 반 스타베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시장 영역에서 교환이란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자유의 가치를, 정치 영역에서 분배를 통해 정의의 가치를, 돌봄 경제(care economy) 영역에서 증여(giving) 활동으로 돌봄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가 각 영역에서 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이 세 가지 가치들을 균형 있게 향유하며 행복한

1) 구은정 (2019) p.214-221 내용 중 본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수정해 본 절을 구성했다.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때 각 영역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상호 대체가능하지 않다. 돌봄영역에서 이루어진 돌봄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환산해 증명해도, 그 물질적 가치는 다른 재화로 교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간호를 받을 때, 그 가치는 돌봄보다는 필요한 돌봄 행위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가치가 우선이다. 물론 시장영역의 돌봄제공자도 제공한 노동과 교환되는 화폐로 이를 경제적 독립, 즉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돌봄수혜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돌봄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돌봄의 가치는 앞서 서술했듯이, 외부에서 규범으로 행위자에게 강제되는 도덕률이 아니라,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현되는 윤리적 가치다(virtue ethics) (Van Staveren 2007). 이는 긍정의 심리학에서 밝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물질이던 애정이던)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발생하는 고마움과 이에 따라 받은 것에 대해 기꺼이 보답하려는 마음과 행위의 발생이다(Fredrickson, 2009: 41-42).

이 글에서 돌봄 가치와 관련해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한다. 첫째, 기존에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으로 모성을 바탕으로 여성이 주어야 할 것으로 가정된 사랑의 가치와 본 연구 구술자들이 향유하길 욕망하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 즉 돌봄 가치는 다르다. 둘째, 모든 돌봄노동이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돌봄의 가치를 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돌봄노동이란 어휘는 돌보는 행위를 일컫는 것일 뿐, 그 행위로 돌봄의 가치를 향유하는 가는 다른 이야기다.²⁾ 이를 좀 더 분명히 하면, 모성을 바탕으로 여성이 주어야 할 것으로 가정된 사랑의 가치와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의 차이는 가치 향유와 관련된다. 모성과 관련된 사랑의 가치는, 여성에게 강제된 도덕률과 유사하다.³⁾ 여성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방적으로 모든 가족에게 사랑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그 가치를 제공자와 수혜자가 함께 향유하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 글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가사노동 제공자와 수행자 사이에서 가치를 향유할 때 발현되는 윤리적 가치(virtue ethics)다 (Van Staveren, 2007). 가령 구술자가 가족을 위해 깨끗이 청소 할 때, 구술자의 배우자와 딸이 깨끗해진 방을 보고 기뻐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행복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술자가 행복을 느

2) 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개념을 다루는 큰 논의들이 필요한데,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3) 여성에게 강제된 도덕률은 전근대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의 담당자로 규정했던 유교주의, 근대 신여성·전문주부 담론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할 것을 여성에게 강제했던 규범 모두를 포함한다. 참조 Koo, 2019.

끼는 순간 ‘향유’되는 가치다. 깨끗한 방은 가족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소비된다. 애정·사랑·돌봄 등 정서적 가치는 구슬자와 가족이 그러한 긍정적 정서를 주고받는 순간 발현되고 향유되고 사라진다(Fredrickson, 2013: 16).

위 두 이론은, 경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시장경제는 인간 경제활동의 한 부분임을 밝혔던 폴라니(Polanyi, 2001)의 사회적경제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두 이론은 모두 인간의 경제활동이 물질적 가치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향유하는 다른 여러 가치들을 창출한다는 것을 이론화했다. 이렇게 두 이론은 사회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뿌리를 둔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관련해 이 이론들은,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라는 어휘가 구분 없이 쓰이고, 시장경제만을 경제영역으로 한정하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곧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로만 제한했던 인식론적 틀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하다.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물질적 가치를 넘는 행위자가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Ⅲ. 방법론적 특성: 연구 자료 및 사회, 정치경제적 맥락

1. 방법론적 특성

앞 장에서, 인식론적 입장에 관한 두 이론을 기술했지만, 이 논문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질적 연구는 이론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양적연구, 실증적 연구와 다소 다르다. 실증 연구는 주로 이론적 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해 질적 연구는 주로 이론적 가정을 배제한 채, 연구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거나 (예, 근거이론 방식), 연구 자료가 말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예, 현상학적 방식) 접근한다(Hammersley, 1995). 그러나 이는 연구 진행과정에 관계되는 원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 구성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이론을 완전히 배제한 연구는 불가능하고, 질적 연구에서 이론적용은 주로 연구 자료에 대한 해석을 더 깊게 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론이 선행되기보다 분석·해석에서 연구 자료와 쪽매붙임(patchwork)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논문 구성에서 이론은 주로 연구 자료 분석 앞에 놓여지고, 이는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상(erroneous

impressions)을 줄 수 있다(Sandelowski, 1993: 216).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이론의 역할과 적용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저자의 박사논문 연구결과에서 일부를 활용해, 본 논문으로 재구성했다. 박사논문에서는 먼저 가사노동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가사노동을 둘러싼 역할 규범 등에 대해 심층인터뷰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에서도 처음엔 물질적 가치와 비물질적 가치, 체현된 가치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세대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그 가치를 크게 느끼는 것, 또 민주화세대에서 가치를 분명히 수치로 표현하지만, 삶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다. 즉 기존연구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인식했던 것과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치는 달랐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치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인식론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앞 장의 두 이론, 몸의 사회학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 이론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활용했다. 그리고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이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대 모두 외부에서 제시되는 가치와 구술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치가 어긋난다는 점이 초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 장의 두 이론은 이론적 가정이 아니다.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치를, 여태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인식론이다.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세대적 분류가 제시되지만, 이것도 귀납적 분석 결과 세대에 따라 가사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가장 다르게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를 좀 더 해석하기 위해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특성과 결합해 재해석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질문을 구성하고 미리 만든 분석틀을 활용해 구술 텍스트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구술자료가 이끄는 데로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질적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가사노동을 다룬 다른 논문들과 다르게 젠더나 계급은 주된 분석 틀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일상의 삶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체현하는데 있어, 급격한 근대화·산업화로 두 세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각 세대 안에서 젠더나 계급 차이보다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세대 내에서 젠더나 계급에 따른 차이는 분명 존재하고, 이를 다루었지만 부차적인 관계로 다소 명확히 드러나지 못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한 구술자의 이야기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구술자의 개별성을 서술해 구술 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따라서 따로 구술자들을 가명으로 호명하지 않았다.

2. 자료 수집

본 논문에서는 저자의 박사과정 논문에 사용된 구술자료 중 자녀를 다 성장시킨 노인세대 28명, 현재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 44명의 구술자료를 사용하였다.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참여자들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의뢰해 단독거주 여성노인 7명, 단독거주 남성노인 7명, 노인부부 7쌍을 소개받아, 복지관 내 상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젊은 세대는 인터뷰 당시 0살에서 고등학생까지 나이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 가사노동을 하는 다른 조건을 포착하기 위해, 전업아내 부부 7쌍, 싱글 맘 7명, 맞벌이 부부 6쌍, 공동체 주택(co-housing) 거주자 9명⁵⁾, 전업남편 부부 1쌍⁶⁾을, 부부는 따로 개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대략 1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진행되어, 한 인터뷰는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구술로 시작해 가사노동 관련 이야기로 좁혀져 진행되었다. 가사노동이란 용어가 구술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아 가사노동에 관한 질문에 집안일로 용어를 변경해 구술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남성노인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가사노동이란 용어가 산업화 시기 학문적 관심을 담아낸 용어임에 반해, 한국사회 현 노인세대들이 성장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과 동떨어진 어휘임을 함의하는 반응이다. 그에 따라 연구자는 인터뷰에서 가사노동과 집안일이란 두 용어를 혼용해 사용했다. 또 남성노인들의 경우 노동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본인의 삶과 별 관계없는 영역으로 해석해 단답형으로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노인들은 자녀 양육시기 잠 잘 시간을 줄여야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던 고단함의 기억, 그 속에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가사노동 포함 일/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했음을 드러냈다.

4) 구술자에 대한 상세한 특성을 명시하기엔 지면관계상 한계가 있고, 구술자와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Koo, 2018 참조.

5) 마포구에 있는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거주자들을 인터뷰했다. 공동주택이 공동육아로부터 출발했음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는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와 외부 생활 조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찾아낸 대안적 가사노동 수행 방식으로 이 연구와 연관된다.

6) 전업남편 부부의 경우 구술자를 구하지 못해 1쌍의 인터뷰만 연구자료로 활용했고, 이는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가사노동이란 어휘에 대한 거부감이 남성 노인에게서 두드러졌지만, 젊은 세대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령, 한 남성 구술자는 인터뷰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메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에선 질문에 대한 답 대신, 자신의 어머니가 본인을 키웠던 활동(?)을 가사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그 구술자는 법조인으로 가사노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정서적 거부감이 몸으로 표현되었고, 이후 글로 명시되었다. 가사노동 가치와 관련해, 남성 노인들의 거부감은 유교주의 맥락에서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과 관계된다.⁷⁾ 반면, 이 남성 구술자는 ‘노동’이란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를 일컫는 어휘로 다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본인의 성장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관계된다. 구술자는 이런 인식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했고, 따라서 언어로 발화되지 못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와 그 어휘의 변화, 또 그에 대한 행위자들의 수용과 거부 등도 가사노동 가치 체현과 관련해 중요한 연구주제라 생각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 사회, 정치경제적 맥락

현재 노인세대의 본인을 위한 또는 부부만을 위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체현은 과거 자녀들을 양육했던 시기와 크게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 텍스트 분석은 구술자들이 본인들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던 시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처음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누어 진행되었던 인터뷰는, 인터뷰 텍스트 초기 분석 후, 초기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로 재규정된다. 이는 구술자들이 자녀를 양육했던 시기로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한편 가사노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란 성별 차이보다, 세대별로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가 뚜렷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또 미리 설정된 분석틀로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의 강점인 분석과정에서 연구 자료와의 상호작용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개념, 분석방향 등을(Bryman, 1984:78)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분석은 ATLAS.ti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대별 카테고리별 대략적 차이를 분석한 후, 각 인터뷰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을 병용했다. 이때 체현된 가치와 상호작용하는 외적 조건으로 경제적 조건과 유교사상/평등의식이 두드러졌다. 이에

7) 이는 다음 장, 초기 산업화세대의 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따라 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구술 자료를 한국사회 정치경제적 변화와 연관해 재분류했다.

우리사회에서 1960-70년대 20-30대였던 세대를 산업화세대, 1980년대 20대였던 세대를 민주화세대로 구분하는 담론에(황아란, 2009) 따라, 이 연구에선 초기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로 구술자들을 분류한다. 살펴보면, 이 연구 노인세대 구술자들은 1950년대 출생한 한명을 제외하고 1930-40년대 출생해, 우리사회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후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했다.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 1980년대 출생한 한 구술자를 제외하고 1960-70년대 출생해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기 청년기를 보냈다. 정확하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구분은 이 연구 구술자들과 약간 어긋나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공통의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한 세대를 구분하는 만하임(Mannheim 1952)의 세대개념에 따를 때, 이 연구 구술자들을 두 세대로 구분하는 것은 가사노동 가치 체현과 관련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초기 산업화세대 구술자들은, 한국사회 압축된 근대화(Chang, 2010) 과정 속에서, 유교주의 문화, 근대적 정치체제, 그리고 저발전 경제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전근대와 근대의 얹힘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특성을 만들어낸다.⁸⁾ 먼저 정치적으로 초기 산업화세대 구술자들은 근대 국가의 국민이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은 강력한 유교문화와 가부장제의 영향 속에 포섭되었다(정재영, 2014; Pascall & Sung, 2007).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대가족 유형인 남성부양자가족, 즉 남성 임금노동 여성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을 실현시킬 수 없는 저발전의 맥락에 놓여있었다. 정치적으로 근대국가란 외형도 극히 불완전했다. 권위주의 국가체제 아래서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시민의식은 형성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혼 시 자녀 양육권 및 재산상속에서 성별 차별을 없애는(Cho, 1994), 2005년에 가부장제의 근간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다(Nam, 2010). 따라서 구술자들에게 유교주의에 기반한 성차별은 일상에서 당연한 삶의 질서이고 공유된 역사적 경험이다. 무엇보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세대는 전국가적 빈곤상황에서 성장했다. 이는 부드런더(Budlender 2008:3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노동을 포함한 부불돌봄노동이 생산하는 물질적 가치가 가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의미한다.

8) 한국일보, “[강준만 칼럼] 비동시성의 동시성” (2006.10.17.)

<https://news.v.daum.net/v/20061017183507349?f=o>

이에 반해, 민주화세대는 본격적 경제성장으로 전국가적 빈곤에서 벗어난 시기 성장기를 보냈다. 또, 직·간접적으로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시작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역사적 경험으로 공유한다. 경제성장은 비로소 근대적 가족형태인 남성부양자가족⁹⁾이 보편적 가족형태가 될 수 있는 물질적 대를 제공했다. 민주사회로의 이행은 전근대적 이념과 결별하고 근대 가족 이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층을 형성했다. 이는 푸아에핑거가 밝힌, 근대 남성 부양자가족 모델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적어도 가족 중 한사람이 부양노동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회적 부와 분배, 문화적으로 새로운 이념에 호응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실재)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Pfau-Effinger, 2004). 다시 말해 이 세대가 본인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제도적 측면에서 유교에 기반한 가부장제는 가족법 개정으로 역사의 유물이 되었고, 물질적 삶에서 경제발전으로 일인생계부양자모델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 세대는 성장기 전근대적 질서를 몸으로 겪고, 청년기 근대적 질서를 의식적 적극적으로 껴안았다. 그러나 근대질서의 정착과 후기근대 의식의 도입이 얹히는 한국사회 압축적 근대화에 직면한다. 이는 이 세대 가사노동 가치의 체현과 관련해 근대적 욕망과 후기근대 의식의 어긋남을 의미한다. 즉, 성별분업에 기반한 근대가족 질서는 자녀에게 충분한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주려는 욕망에 부합했지만, 가족 내 역할보다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하는 후기근대 의식과 (Ochiai, 2014: 210-217) 충돌한다.

4. 구술자 개괄

먼저 초기산업화세대를 보면, 첫째, 여성노인들의 학력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대체로 낮고, 독거노인들의 경우 두 구술자를 제외한 여성과 남성 모두 월 10만원에서 48만 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13년 단독가구 최저생계비 5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¹⁰⁾ 즉 2011년 기준 상대적 빈곤률 48.8%, 절대적 빈곤률 36.1%인 노인빈

9) 후기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위축에 따른 남성부양자가족의 균열을 밝힌 연구들은 물론 타당하다 (강이수, 2011; 신경아, 2014). 한국에서 남성 실업률은 1990년 2.9%로 완전고용으로 여겨지는 3% 아래로 떨어졌고 1998년 아시안 경제위기로 7.8%로 올랐다. 이는 통계로 거칠게 얘기하면, 남성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 여성도 부양을 해야 했고, 결국 남성1인생계부양자 모델은 역사적으로 아주 짧은 시기에만 적절한 개념임을 의미한다.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년 8월 29일),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곤를 (윤석명 2013: 9)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단독거주 구술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부부 사례 1을 제외한 다른 노인부부의 경우 모두 자기 집을 소유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인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와 관련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구술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했던 시기, 전사회적인 절대빈곤의 조건에서 개개인의 경제적 차이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기산업화세대에게 매일의 삶에서 가사노동이 생산하는 (물질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교주의의 영향 하에서 그들의 의식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둘째, 이혼 경위와 자녀양육에서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은 차이를 보인다. 한명을 제외한 모든 독거여성노인들이 빈곤가정 출신이다. 결혼 후,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초기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남편이 병으로 사망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등 생애 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자녀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구술자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녀가 어렸을 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자녀가 생존한 경우 비록 경제적 지원은 못 받지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의 경우, 고학한 두 구술자를 제외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독거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구술했다. 본인들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거나, 다른 이유로 이혼이나 별거에 이른 후, 자녀들과의 교류도 중단되기도 한다. 특히, 이미 자녀 양육시기가 지난 후 이혼한 경우도 자녀와 교류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자녀양육이라는 가사노동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이 잘 성장한 것을 통해 아내가 수행했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현재 인지한다. 이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노인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양육 시기는 가사노동 포함 온갖 일을 수행하는 부인의 노동을 당연히 여겼지만, 현재 그런 노동으로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이 가능했음을 인지하고 고마움을 느낀다.

민주화세대는, 26 가구 중, 7가구는 유아기 자녀를, 5가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14가구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무엇보다 44명의 구술자 중 9명이 고등학교 학력을 나머지는 대졸이상 학력으로, 이는 2011년 35-44세 인구 49% 그리고 45-54세 인구 28% 가 대졸이상 학력인 (OECD, 2013:

37) 우리사회 평균과 비교해 높다.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곧 인적자본으로 직결되는 바, 본 연구 민주화세대 구술자들의 경제적 조건이 우리사회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전업남편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 민주화세대는 도시중산층이 대표적이고, 이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성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계층별 차이도 이 연구에서 체현한 가사노동의 가치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가령, 초기산업화세대의 경우 아무리 부유한 가구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사노동 대체품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국가적 빈곤 하에서 여성들의 가사노동 수행은 가정의 유지 번영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 민주화세대의 경우 싱글맘 네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의 물질적 삶을 위한 가사노동 수행은 별 의미가 없다. 이미 시장엔 저렴한 가격의 가사노동 대체품이 많다. 무엇보다 현 한국사회에서 물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선 집에서 가사노동을 잘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다. 계층과 관련해 세대와 교차하면,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 본 연구 구술자 표본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빈곤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신흥공업국가가 된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심계층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별 계층별로 고정된 가사노동의 가치를 분석하기보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조응하면서 변화하는 가치를 포착하는데 적합하다.

IV.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

1. 초기 산업화 세대: 지식·몸·담론 사이, 가사노동 가치의 어긋남

초기 산업화 세대 가사노동 가치와 실천에 대한 구술에선 문화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 사이 모순, 그리고 담론과 동떨어진 일상이 특징적이다. 첫째, 유교적 관습에 의해 가사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되어 인식된다. 그러나 전 국가적 빈곤상황에서, 가사노동 생산물 없이 삶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몸은 체현한다. 이렇게 문화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은 어긋난다. 둘째,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신여성·전업주부 개념과 같은 근대적 이념들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담론이 엘리트층을 중심으

로 확산된다. 그러나 이런 담론은 대다수 구술자들의 일상에 삼투하지 못한다.

1) 유교적 지식에 의한 가사노동 가치 평가절하와 몸에 체현된 가치 인정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규정한 관습적 규범이, 여성과 남성의 유교적 젠더 위계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다. 유가 사상에서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로 구분하고, 이는 ‘마음의 일’과 ‘육체의 일’로 등치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은 대인으로써 마음의 일을, 여성은 소인으로써 육체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질서다 (조순경, 2001:188). 그리고 이 유가사상에 바탕을 둔 성별 역할분담은 남성 부양노동 여성 가사노동이라는 근대 성별분업과 다르다¹¹⁾. 조순경은 (2001:188) “마음으로 애쓰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육체로 애쓰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는 자를 먹여 살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천하의 도리”라는 맹자의 말을 소개한다. 이런 유교 질서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부양자가 된다. 이때 가사노동 가치 평가절하는 근대 가사노동 논쟁에서 다루어진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개념화 하느냐와 연관이 없다. 물론 초기 산업화시대 다수는 이런 유교사상을 직접 학문으로 배우지 않았을 수 있다. 또 저발전의 경제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피부양자가 되긴 어려웠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문화적 관습적 지식에 기반해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절하는 구술자들에게 내면화된다. 오랫동안 내면화된 지식은 다시 성찰해서 재인식되기 어렵다.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 “돈으로 환산하면, 가사노동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란 질문에 대부분 여성구술자들은 “가치, 무슨 가치, 난 몰라,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 남성구술자들은 “가치, 그게 뭐 가치가 있어”란 대답이 즉각적인 반응이다. 성찰되기 어려운 관습적 지식은 보통 말로 표현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아래 남성구술자는 유교질서에 따라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내 개념으로는 가사노동 개념이 없어요. 제가 성장할 때는 가부장제의 기본적인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나가면 맨몸으로 나갔지 가사노동을 생각해준다, 이걸 최근에 여성들이 주장하는 얘기지.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가사노동은 뭐 가사노동

11) 근대 성별분업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예속시켜 성차별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전근대 성별역할분담은 경제적 관계보다 우선해서 젠더 위계 자체에 의해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켰다 (Koo, 2019).

이예요. 그게 뭐 중요했습니까? 솔직히 돈으로 환산 못하죠.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건 노터치. 그런 건 무시, 그리고 실제 그게 무시돼야 맞아. 왜냐하면 요즘 그것이 우리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니까, 여자들이 하도 드셔서, 호적법 바꾸고 성도 바꾸고 제멋대로 다 하잖아요, 여자들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근본을 없애는 행위예요.”

이 남성구술자는 1941년 아버지가 양조장을 하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부터 당시 대학에 다녔던 형과 서울에서 공부했다. 본인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10여 년 전 이혼 후, 인터뷰 당시까지 혼자 살고 있고, 아들과 딸이 자주 방문한다. 그는 아들 쪽 손주가 핏줄이라 더 예쁘다고 이야기 하는 등, 가부장제 질서가 몸에 새겨져있다. 구술자의 위 구술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사노동 어휘에 대한 부정, 세상의 변화와 유교질서의 혼란, 구술자에게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 등에 대한 구술자의 인식이 얹혀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 그의 몸에 체현된 가부장제 질서는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 가사노동 가치 인정은 곧 가부장제 질서의 붕괴와 맞닿고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그에게 관습적 지식에 의한 가사노동 가치 평가절하는 곧 질서유지를 위한 옳은 길이고,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회에 대한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현재 사회의 새로운 인식은 그의 삶에 삼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평가절하해도, 그의 몸은 이미 그 가치를 체현했다. 그래 불현듯, 가치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튀어나온다. 그가 몸으로 체현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가 몸으로 체현한 가치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도 표현된다. “맨날 늦게 들어왔으니까 와서 잠만 자고 그랬지. 마누라하고 그렇게 가정적인 생활은 못해봤어요. 한마디로 불량스러운 남편이었던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한편으론 미안해요. 그래 지금 이혼은 했지만 마누라가 예뻐, 지금 보면 고맙고. 왜냐하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을 올바르게 키웠잖아요.” 남편과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했던 아내는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온전히 책임졌고, 때문에 현재 이혼 후 혼자 사는 그를 가끔씩 찾아와 돌봐주는 잘 성장한 자녀는 온전히 아내의 공이다. 즉 아내가 수행한 가사노동의 결과로 가족이 유지되고 자녀들이 성장했다. 그리고 자녀와 교류의 순간 아내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현재 구술자는 향유한다. 구술자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핵심에 그 가치가 있다.

또 그가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할 때 느끼는 고단함을 통해서도 가사노동의

가치는 몸에 체현된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당시 대학까지 나왔지만, 서울에서 살 때, 형이 결혼하기 전까지 그도 가사노동을 했다. “1-2 학년 때까지는 나도 밥 여러 번 했어요. 그때는 연탄도 갈려면 어렵잖아요. 어렸을 땐데, 그제 구멍 맞춰서 갈면서 가스중독도 돼 보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서울에서 편하게 살줄 알았지만, 사실 서울 와서 고생했죠.” 그리고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 “세탁기가 돌아가지만 그걸 넣고 하는 게 그게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뭐 힘드냐고 할지 몰라도 그게 일거리 보통 아니에요.” 구슬자가 직접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홀로 사는 그의 처지를 비판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는 직접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고단함도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느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현재 구슬자는 여자친구가 있고, 가끔 그 친구가 와서 가사노동을 대신 해준다. 그에 대해 그는 “틈틈이 와서 반찬해 주고, 빨래 해주고. 빨래라고 뭐지가 하나 그냥 널었다 갠다 뿐이지”라고 이야기한다. 같은 빨래이지만, 구슬자 본인이 할 때, 일거리가 보통이 아닌 일인데, 타인이 할 땐 기계가 하는 일을 보조하는 일일 뿐인 것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돌리고, 널고, 개는 같은 노동에 대해, 그는 의도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이 자기모순의 핵심인 자신이 수행하지 않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다스리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유교사상을 실재하게 하는 동력일 수 있다. ‘다스림’이 억압적 통치가 아니라 보살피 이끌어 줌의 의미로, 이에 대한 대가가 물질적 부양이라 하더라도, 다스림과 물질적 부양이 짝을 이루면서, 물질적 부양을 위한 육체노동의 가치는 사라진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평등한) 관계이지만,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지속된다.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이 세대 구슬자 중 부유한 가족배경으로 가사노동에서 면제되었던 한 여성구슬자에게서도 동일하다. “뭘 돈 벌면 머리맡에 두고 쓸 거 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평생을 호강하며 살은 거야, 고생, 고통이라는 걸 몰랐어”라고 이야기 하는 구슬자는 주로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회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가사노동은 ‘식모’ (유급 가사노동자)가 했다. 이에 대해 구슬자는 “집안 일이 식구도 없고, 간단하고, 뭘 할 것도 없어, 살림도 없어. 그리고 또 집에 밥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 평생을 난 일은 안했어”라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에선 타인이 대신해 주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엿보인다. 남편이 홀로 월남했기 때문

에 구술자에게는 시댁식구도 없고 아들이 한명이라 가족이 단출하다. 그러나 식모와 아들을 돌보는 아이, 또 한때는 다른 아이들 세 명을 키우기도 해, 같이 사는 사람이 5-8명으로 해야 할 가사노동이 없을 정도로 단출한 가구는 아니다. 그보단 구술자가 직접 하지 않는 가사노동이 할 것도 없는 일로 평가절하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그녀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과 연관된다. *“내가 먼저 음식도 맛을 보고, 내가 먼저 일을 알아야 저 사람을 시킬 수 있지, 그래야 시킬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걸 무조건 다 맡겨도 안돼. 내가 후하게 하면서도 내가 알아야 해. 그걸 모르고 시키면 그걸 조금 잘못된 거야”*라는 구술은 그녀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남성이 가장으로 여성을 다스리고, 여성의 가사노동을 평가절하 했듯이, 양반과 노비의 관계에서 노비의 육체노동이 평가절하 되었듯이, 그녀와 식모의 관계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식모의 가사노동을 할 것도 없는 일로 평가절하한다.

사실 그녀가 했던 봉사활동도 일 자체로 보면 가사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치를 담구고 영양죽을 썰서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 활동은 그녀에게 굉장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다. 비록 가사노동과 같은 형태의 일이라도 여럿이 같이 하고 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 그녀가 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여기는 이유다. 또 당시 그런 봉사활동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종의 특권이었다는 점도 그 의미를 더한다. *“돈도 모자라면 대주고 그러지, 어려운 사람은 못해요”* 남편은 구술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했다. 이런 구술자의 특별한 위치가 당시 봉사활동을 가치 있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집에서 김치를 만들고 죽을 쑤는 누구나 하는 가사노동은 그녀에게 가치 없지만, 경제적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의미가 있다. 이는 근대 여성이 공적영역, 즉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하려는 근대적 주체성의 형성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근대적 주체성이란 주로 소수 엘리트 여성의 전유물로 (가치 없는) 육체/가사노동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본인이 수행하지 않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와 병행한다. 이렇게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해 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타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한다. 직접 수행하는 노동의 고단함을 몸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테다. 따라서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의 양을 평가한다면, 성별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빈곤 시기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워냈던 삶의 경험으로 산업화세대 대다수 구술자에게 체현된 가사노동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해석 또한 타당하다.

“거기는 물도 안 나왔어요. 물도 안 나와서 높은 지대에서 물을 안식구가 새벽잠 설치 가면서 물지게로 지어다 빨래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랬던 거로 기억해요. 아마 내가 약간 도움을 줬겠지만, 제가 거의 안하고 안식구가 했어요.... 그때는 그런 건 몰랐어요. 철이 없고, 그렇게 사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 실제로 저 사람이 시집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지금까지 큰 싸움 없고 큰 갈등 없이 살아온 것도 다행으로 생각 하죠.”

현재 아내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남성구술자의 이야기다. 구술자와 아내는 봉제공장, 미싱 임대업을 같이 해왔다. 그리고 맡겨드리었던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시동생들을 포함한 일곱 식구를 위한 가사노동을 혼자 감당했다. 이 아내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당시 여성구술자들의 하루는 보통 새벽 4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온갖 일들로 점철되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었던 가사노동 수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때문에 대다수 여성구술자들은 시나브로 자신의 노동으로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유지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리고 현재 남편에게보다 자신에게 더 잘하는 성장한 자녀와 맺는 좋은 관계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향유된다. 말로 분명히 가치를 표현했던 남성구술자와 비슷하게, 다른 남성구술자들도 당시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가정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인정한다.

2) 전업주부 이념에 함축된 가사노동 가치와 그 가치 실현의 비현실성

우리사회에 전업주부 개념은 식민지 조선시대 ‘신여성’ ‘가사노동’ 담론과 함께 ‘서구화’ ‘근대화’의 이미지로 도입되었다(김경일, 2012; 김혜경, 1999). 그리고 1950년대 전근대적 젠더관계가 근대적 관계로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현모양처 이념을 기반으로 ‘제도로서의 (전업)주부’가 탄생했다(김현주, 2007). 전근대사회 가족관계에서 여성은 가문의 며느리로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한편, 근대 가족관계에서는 자유연애와 사랑으로 결혼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합리적·효율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과거 “하인의 일”이었던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로 규정되었고(김혜경, 1999: 175), 주부는 위대한 모성을 지닌 전인교육의 담당자로(김현주, 2007) 가정의 참주인으로 격상(김혜경, 1999: 175) 되었다. 이런 과학적인 가사노동, 효율적으로 가정을 경영하는 주부 담론은 여성에게 자기정체성과 자존감을 제공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김혜경, 1999: 176). 이런 담론은 엘리트 계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근대적 성별분업을 이룰 수 없는 저발전의 식민지 경제조건에서 당시 대다수 여성들의 삶과 괴리되었다(김경일, 2012; 김혜경, 1999). 이는 본 연구 초기산업화세대 대다수 구술자들의 구술에서 전업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엘리트 계층이 호응했던 가사노동 담론의 비현실성은, 우리나라 최초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나혜석의 단편소설「경희」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에 대해 서정자(1997)는 남성의 눈으로 하인의 가사노동을 보는 소설 속 주인공 여성 엘리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낸다. 서정자(1997: 31)는 이 소설에서 작가가 신여성에 대한 나쁜 사회적 평판을 바꾸려는 계몽적 의도로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신여성을 내세웠지만, 그 신여성에게 가사노동이란 여전히 ‘당신들의 일’에 머물러 있는 계층적 차별을 읽어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 이외 다른 가치를 즐기는 신여성과, 당시 경제적 상황에서 그 가치 실현의 비현실성에 주목한다. 소설에서 주인공 경희는 (가사노동)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즐긴다. 그러나 경희가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일’을 본인이 원할 때 잠시 할 뿐, 물질적 가치 생산이 경희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다수 여성들에게 경희의 삶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본 연구 구술자들 중에선, 1952년 서울에서 비교적 유복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구술자가 유일하게,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가사노동의 가치, 전업주부에 대한 희망 등을 구술한다. 이는 구술자가 서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근대 가족제도에 대한 담론이 대중화되는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술자에게 결혼은 근대적 의미의 결혼, 즉 사랑에 기반한 결혼이다. 비록 구술자의 실제 결혼생활은 사랑에 기반하진 못했지만, 전업주부란 근대적 성별분업을 향한 적극적 선택이었다. 당시 구술자가 소개 받았던 현재 남편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문패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었다. 이를 구술자는 전업주부로 살 수 있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미스 때 영화를 보러가요. 그러면 2층집에서 사모님들이 이렇게, 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내가 알뜰하면. 그래서 집 있는 사람을 빨리 승낙했으”라는 구술은, 구술자에게 전업주부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전업주부 삶에 대한 희망과 다르게, 구술자는 바둑과 음악활동에 빠져 살았던 남편을 대신해, 온갖 일을 하면서 (공장, 부업, 가게 등)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했다. 두 아들을 다 결혼시킨 현재, 자신이 결국 해냈다는 자긍심도 구술되지만, 전업주부와 부양자남편으로 구성되는 근

대가족이란 이념형과 멀었던 자신의 삶을 엉터리 삶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살림만 했다면, 내 식구들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그게 어떤 영향이 가고 그걸 연구해서, 모든 생활에만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안돼서 엉터리로 살고 있지만”이란 구술은 가사노동에 대한 근대 담론, 즉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 이념과 맞닿아 있다.

이런 근대 전업주부 가사노동 담론을 충실히 받아들인 구술자는 근대 가사노동이 답아야 할 가치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 한다. “어떻게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돈으로 따져요, 내 사랑이 흐르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가사노동이 얼마다 하는데, 조물주가 자연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안될 것 같은데”라는 구술은, 근대 모성 담론에 바탕한 사랑의 수행인 가사노동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일방적으로 어머니/여성에게서 흘러야 하는 조물주가 정해 준 질서다. 행위자가 향유해 기꺼이 실천하는 윤리적 가치가(Van Staveren, 2007)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서 유교사상을 인간의 도리로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자 외부에 자연법으로 존재하는, 여성에게 역할로 강제되는 규범이다. 즉 앞서 개념 정의에서 서술했듯이, 모성에 기반한 사랑은 가치 향유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이는 이 글에서 다루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와 다르다. 물론 모성에 고정된 것으로 여겨진 사랑과 이의 실천으로서 가사노동 수행이란 근대초기 이념적 가사노동과 다른, 돌봄을 나누며 향유하게 되는 가치에 대해 분명히 밝히기 위해선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절에선, 이런 근대적 가사노동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넘는 가치는 초기 산업화세대 구술자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 민주화세대: 불분명한 체현된 가치 vs.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망

민주화세대가 체현한 가사노동 가치에선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금전적으로 환산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몸은 그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 관습적 지식에 의한 가치의 평가절하와 몸에 체현된 상당한 가치라는 초기 산업화세대의 경우와 비교할 때 방향은 다르지만, 행위자 외부에서 제시되는 지식과 행위자가 몸으로 체현한 지식이 어긋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둘째, 성장기 경험을 성찰하면서, 부모세대에게

받지 못했던, 정서적 돌봄·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살뜰한 지도 등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 향유를 욕망한다.

1) 명확한 금전적 가치와 불분명한 체현된 가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가치 환산 방법은 다양하고 이에 따라 환산된 가치는 차이가 있다. 가사노동자 임금, 요리사 또는 보육교사 등 그 일을 시장노동으로 하는 사람들의 월급, 또는 평균임금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된다 (Budlender, 2008: 35). 구술자들은 가치 환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환산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 스스로 유급가사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일인당 국민소득을, 또는 남편의 임금을 기준으로 금전적 가치를 환산하기도 한다. 학문적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는 남편의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가족의 물질적 삶에서 가사노동의 종속성을 드러낸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란 질문에 대부분 구술자들은 “그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월, 백만 원, 이백만 원 된다고 하던데”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보통 그보다 높게 환산한다. 즉 백만 원으로 환산되는 가사노동 가치는 단순한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을 환산했을 때로 인식하는데, 이는 실제 유급가사노동자들이 주 28시간 일했을 때 받는 월 급여 수준과 비슷하다.

자녀양육을 위해 유급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한 살과 네 살 두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는 아이돌봄을 도와주는 이웃할머니를 고용했는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하루 4시간, 20일 기준으로, 월 팔십만 원을 지불한다. 할머니가 둘째 아이를 돌봐주는 동안 구술자는, 구에서 분양받은 텃밭을 가꾸거나, 첫째 아이를 데리러 간다던가, 첫째와 장을 보러 가는 등 첫째 아이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보낸다. 구술자는 이런 경험과 입주가사노동자에게 보통 이백만원에서 이백사십만원 정도 월급을 지불하는 이웃들의 경우를 고려해, 본인의 가사노동을 월 삼백에서 사백만원 정도로 환산한다. 구술자는 “저는 다 만들어 먹이고 만들어 입히니까 더 많겠쎬. 한 3-400 되겠쎬. 그냥 일반적인 것은 200만원.” 라고 이야기한다.

대다수 구술자들은 대략 월 2-300만 원 정도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데, 전업남편의 아내는 가장 적게 60만원으로 환산했다. 남성들의 경우 자신들의 임금과 비슷하거나, 일인당 국민소득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으로 나눠 대략 5백만 원 정도로 제시하기도 했

다. 전업남편의 경우, 한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유식도 모두 만들어 먹이고, 초등학교까지 홈스쿨링을 하는 등 실제로는 여성구술자들에 비해 상당한 양의 가사노동을 수행했다. 다른 누구보다 가사노동을 열심히 잘 해왔다는 것을 아내도 인정한다. 그러나 아내가 느끼는 금전적 가치는 크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이 수행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인색한 평가는, 인터뷰 당시 자녀가 이미 커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내가 가장으로써 돈 버는 역할에 지쳐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업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른 구술자들과 비슷하게 평가하지만, 500만 원을 준다 해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가사노동이 생산하는 돌봄의 가치는 애정·관심·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현되는 가치인데, 경제적 무능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아내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에서 돌봄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대 구술자들이 가사노동 가치를 높게 측정하는 것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그 가치를 향유한다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구술자들의 인식이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물질적 생활을 위한 생산에서 가사노동의 종속적 위치다. 이는 가사노동을 (재)생산 영역에 위치 지으려 했던 가사노동 논쟁과(Gardiner, 2000; Himmelweit and Mohun, 1977; Kain, 1993; Molyneux, 1979) 다소 어긋난다. 구술자들이 몸으로 체현한 가치는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환산을 위해서 항상 시장가치란 (가사노동자 임금, 국민소득, 남편 임금 등)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가치 평가는 결국 가사노동이 가족의 물질적 생활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 전업아내의 구술은 가사노동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구술자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다. 남편이 장남으로, 결혼 초 남편의 동생들과 함께 생활했고, 결혼 1년 후부터 시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 제사를 본인 집에서 20년 넘게 지내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구술자가 수행한 가사노동은 구술자 본인의 자녀와 남편을 위한 가사노동 이외 장남의 아내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서 구술자는 “글세, 가사노동의 가치는 내가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한 비율도 되는 거 같아요. 남편이 100만원밖에 못 버는 데 내가 환산하니 100만원 넘는다고, 이걸 웃기잖아요.”라고 구술한다. 이렇듯 남편의 임금을 넘는 가사노동 가치 평가는 구술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가사노동은 소비의 영역에서 인지되기 때문이다. 즉 과거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당시, 가사노동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산노동과 분리되지 않았다.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상당한

물질적 (사용)가치를 생산했다. 그러나 시장노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가사 노동은 소비에 기반한다.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사야하고, 수도물을 써야 하고, 전기를 써야하는 소비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 소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임금이 우선 필요하다. 때문에 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임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사노동 가치란 모순으로 여겨진다. 과거 전국가적 빈곤상태에서 학교에 못하는 자녀는 가사노동을 하던 동생을 돌보던 발일을 하던 무언가 노동을 해 가족의 물질적 삶을 도왔다. 그러나 현재, 전업남편이 수행한 홈스쿨링은 물질적 가치로 따졌을 때 가족경제에선 소비였다.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초등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데, 전업남편은 홈스쿨링에 필요한 것들을 아내의 월급에서 지출해야 했다. 이는 아내에게 아이가 원하는 교육의 생산보단 급여의 지출로 여겨져 남편이 수행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게 평가하는 한 이유가 되었을 수 있다. 이렇듯 시장경제가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임금/수입에 종속되고, 이는 구술자들이 남편의 임금을 기준으로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인식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민주화세대에서 가사노동 가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사실 체현된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스스로 저는 가치를 발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죠, 가사노동이 노동 강도를 따지고 일의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일반 직장인들 노동보다, 그것에 버금가는 급여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걸 배우기는 하는데, 나 스스로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라는 구술은 초기 산업화세대가 체현한 돈으로 따질 수 없게 큰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구술과 상당히 다르다. 이는 저발전의 경제상황에서 가사노동을 포함한 무급 돌봄노동이 물질적 삶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가 발전된 사회에서 무급 돌봄노동이 물질적 삶에서 담당하는 비율이 낮다는 (Budlender, 2008: 37-38), 즉 줄어든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의 어긋남이다. 산업화세대와 다르게 민주화세대 구술자들은 가사노동 가치를 통계적 방법으로 환산해 인식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스스로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 어긋남은, 첫째,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를 밝혀 가사노동의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밝혀낸 연구들이 행위자들의 일상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위자가 몸으로 체현한 지식과 불일치하는 과학적 지식·문화적 지식은, 몸의 체현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상을 이론화하는 몸의 사회학이 (Bendelow & Williams, 1998: 3) 인식론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망

민주화세대의 가사노동 가치 체현에서 두 번째 특징은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욕망이다. 이때 민주화세대가 욕망하는 비물질적 가치는 과거 초기근대시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합리적, 효율적,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가사노동이란 담론이 내포한 ‘사랑’이라는 비물질적 가치와 유사하지만 다르다. 초기근대 유입된 가사노동 담론에 내포된 ‘사랑’의 가치는 행위자 외부에서 행위규범으로 강제되는 도덕률에 기반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 민주화세대 구술자들이 욕망하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행위자를 강제하는 도덕률을 내면화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체험과 그에 대한 성찰 속에서 스스로 욕망하는 가치다.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또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일상에서 향유할 때 정서적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다. 이는 행위자가 체현하고 향유하는 덕목으로서의 윤리적 가치(virtual ethics)라는 앞서 제시한 돌봄의 가치와(Van Staveren 2007) 만난다.

아래 구술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의 구술이다. 이 남성구술자는 비록 맞벌이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아이교육에서 놓쳤던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한다.

“가정교육도 포함되나요. 그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죠. 사실, 요즘 느끼는데 첫째놈한테 되게 미안해요. 우리 맞벌이 한다고 개를 어른시켰던 거. 그때로 안 돌아가지니까. 개가 어떤 생각하고 이런 걸 모르고 첫째라서 욕박만 지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돈으로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술은 초기 산업화세대의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구술과 비슷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초기 산업화세대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굉장히 큰 가사노동 가치란 구술과 위 구술을 비교할 때, 두 가지 맥락에서 다소 다르다. 첫째, 초기 산업화세대의 구술은 몸으로 그 가치를 체현했음에 대한 구술인 반면, 위에선 그 가치를 놓쳤음을 구술한다. 둘째, 초기 산업화세대의 구술에 비해, 위 구술은 아이 교육으로 초점이 좁혀진다. 즉 아이의 몸을 성장시키는 물질의 제공은 포함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아이와의 소통을 놓쳤고 아이가 어린시절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비물질적 가치가 초점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사회에서 육체적인 가사노동보다 아이 돌봄에 더 시간을 쏟는 변화를 포착해 가사노동이란 어휘 대신 ‘돌봄(care)’이란 어휘로 바뀌는(Gardiner 2000: 96-99; Himmelweit,

2000) 학문적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때 돌봄은 행위로서의 돌봄보다 가치로서의 돌봄과 관계된다. 현재 세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 구술자는 어린시절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돌봄의 가치를 그리워하며, 아이에게 본인이 욕망하는 가치를 주고 싶어 한다.

“한집에 살았어도,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새벽에 나가고 와서 밥하기 바쁘고, 그래서 좋은 엄마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 엄마가 없이 컸단 느낌이 있어서. 아빠랑 엄마랑 비슷한 존재, 돈 벌기 위해서. 저 첫 생리하고 이럴 때 엄마가 전혀 몰랐거든요. 여자로서 성장의 단계가 있고,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때마다 케어를 못 받고 스스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는 그런 외로움을, 니가 손을 내밀면 엄마는 네 손이 닿는 곳에 있을게. 그런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줄게.”

위 구술자가 받지 못했던 정서적 돌봄은 구술자에게 외로움의 정서를 남겼다. 그 외로움은 때때로 구술자의 일상을 어둡게 해, 활기차게 변영하는(fourishing) 일상을 영위하기 보단 그녀를 위축되게 만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현재 구술자가 전업아내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 이유다.

다른 전업아내 이야기다. 딸 한명을 키우는 구술자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학업계획을 짜주고, 아이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고, 친구들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래 아이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 아이가 최상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생활한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우선하는, 학업적 성취에 기반해 물질적 성취를 획득하게 하려는 중산층의 도구주의적 가족전략으로 여겨진다(박혜경, 2008). 그러나 이 여성구술자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책읽어주고 노는데, 어머님 댁에 맡기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더라구요”라는 이야기에서 보이듯, 아이의 시간을 다른 질로 채워주고픈 욕망이었다. 현재 아이에게 성적이 중요한 이유도 물질적 성취와 조금 결을 달리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학년 입학시켰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아이들도 엄마들도 아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구나, 공부를 잘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기회도 오더라구요.... 살아보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모든 능력을 갖춰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 구술이 보여주듯, 좋은 성적은 내성적인 아이가 친구를 사귄 수 있게 해 주고, 후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구술자가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학업성취와 연결되는 안락한 삶에 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물질적 가치만을 중심에 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Klamer, 2017; Van Staveren, 2001),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만을 중심에 둔 기존 논의들이 구술자들이 욕망하는 다른 가치들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친구관계를 위해, 선택을 넓혀주기 위해 등의 비물질적 가치를 아이에게 주기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했지만, 구술자 본인이 이런 선택을 기쁘게 향유하는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이에게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구술자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마음 아팠던 경험과 그때 자신을 비판했던 남편의 태도가 상처가 되었다. 현재 집을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이 불만스럽고, 앞으로도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배경으로, 아이들은 결혼을 아주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이 성적을 중심으로 일상을 배치하는 구술자도 아이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저희 아이는 두 개가 다 인생에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있고, 가정생활 있고,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해서 그런지, 인생에서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한테도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결혼이 꼭 필수 과정은 아니고, 이이를 낳는 것이 꼭 필수과정은 아니라고. 제가 아이에게 너무 몰입해서 키우니까 제 아이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할까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나는 너무 즐거웠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설명을 하려고,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구술자는 아이를 몰입해서 키우는 삶이 즐거웠다고 이야기 하지만, 위 구술에서 구술자가 자신의 선택을 되짚어 보며, 꼭 그것만이 길은 아니라고 반복한다. 이 되새김은, 다른 길도 좋았겠다는 미련을 담고 있다. 비록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이런 아쉬움들은 구술자 본인의 선택을 스스로가 풍족하게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구술자가 느끼는 아쉬움은 아이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도 구술자가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 수혜자로서 자녀들의 가치 체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해 이 부분을 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의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에 대해 폭넓은 후속연구가 이어져, 가사노동 가치 체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전업주부 구슬자들의 구슬은 성별분업에 기반해 자녀에게 충분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주려 했던 선택과 사회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선택하고 싶은 후기근대 의식(Ochiai, 2014: 210-217)이 충돌함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뷰 당시 1살 3살의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여성구슬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한다. 앞서 만들어 입히고 직접 음식을 하는 본인의 가사노동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구슬자는 “*만들어 입히면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슬자 본인이 그 가치를 향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아이 옷을 만드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히고 싶은 욕망의 실현이다. 이때 옷은 몸을 보호하는 물질적 가치를 넘는다. 때문에 시장에서 구입할 때보다 더 싸게 옷을 만든 만큼, 본인 가사노동의 가치를 더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구슬자가 만든 옷은 구슬자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애정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엄마와 자녀라는 관계, 둘 사이 유대감이란 상징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구슬자가 만든 옷을 입고 즐겁게 뛰노는 아이를 보는 순간, 구슬자는 그 옷에 담긴 애정의 가치, 상징적 가치를 향유하며, 미소 짓게 된다. 가치를 향유하며 미소 짓는 순간, 그 가치는 구슬자 몸에 새겨진다. 만약 아이가 구슬자가 만든 옷을 입기 싫어한다면, 구슬자는 옷에 담긴 애정의 가치, 상징적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 즉 아이가 그 옷을 입기 싫어하면서도 입는다면, 옷에 담긴 물질적 가치는 아이가 옷을 입고 소비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옷을 입고 입기 싫다고 투덜대는 아이와 관계에서 구슬자가 애정의 가치 상징적 가치를 향유하긴 어렵다. 돌봄이란 비물질적 가치는 구슬자와 자녀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향유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텃밭에서 배추를 키워 김장도 하는 구슬자에게 음식을 직접 하는 이유는 좋은 식습관을 아이가 가지길 원하기 때문이고, 가족의 건강을 위함이다. “*아침은 오늘도 나물 주말에 해놓은 걸로 밥 차려줬거든요. 안 그러면 신랑이 하루 종일 조미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도 피곤하고. 저도 직장생활해보면, 조미료 있는 음식 하루 세끼 먹으면 진짜 그날 훨씬 더 피곤해요. 저한테 가사는 건강이죠. 내가 그나마 식구들한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구슬한다. 과거 나물은 빈곤한 겨울을 버티기 위해 준비하는 재료였을 테다. 그러나 현재는 손이 많이 가지만,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웰빙(well-being) 음식이다. 이때 시장에서 조리된 나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싸게 나물을 준비한 만큼 구슬자가 본인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나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란 물질적 가치는 아이와 남편이 나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번거롭지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던 마음, 즉 돌봄의 가치는 그 나물을 맛있게 먹는 모습, 맛있다고 건네는 말 한마디, 이런 소통을 주고받는 순간 향유된다. 만약 아이와 남편이 애써 준비한 나물을 즐겁게 먹지 않는다면, 구술자가 나누고 싶었던 돌봄의 가치는 향유되지 못한다. 이런 경험이 쌓인다면, 구술자는 더 이상 나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 구술자가 향유하고 싶은 돌봄의 가치는, 모성에 기반해 구술자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흐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뷰 당시 구술자는 남편과 본인 각자의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줄곧 주말부부로 지냈다. 때문에 구술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네 식구가 한집에서 지낸지, 둘째아이 육아휴직 포함해 채 2년이 안됐다. 이런 그동안의 생활 경험 때문에 구술자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하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엔, 구술자가 어린 시절부터 향유해온 중산층 가족문화가 배경이다.

구술자의 아버지는 교수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만들기 강사 등을 하다, 현재 전시회를 하는 작가로 활동한다. 과거 손재주 좋은 어머니는 학교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소풍 때 매번 선생님 도시락을 아주 예쁘게 싸주셨다. 덕분에 구술자는 학교생활에서 항상 주목받았다. 당시 어머니도 가사노동자를 고용했었다.¹²⁾ 현재 구술자가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구술자가 한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구술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즉 구술자가 가진 경제력이 구술자의 선택을 진짜 선택으로 만든다. “그때는 사람을 쓰겠쥬.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신랑한테 집안 일 하는 시간에 아들하고 놀아주고, 차라리 일을 해 돈을 더 벌어서 아줌마 비용을 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구술자는 둘째 아이 돌보는 할머니를 고용하고 있고, 첫째 아이와 놀아주는 놀이교사를 주 1회 고용하고 있다. “청소를 하는데 해야 할 때 하는 것과 하고 싶어서 할 때, 음식도 이제 내가 꼭 해야 해서 하는 것과 해서 그걸 아이가 맛있게 먹을 걸 기대하면서 하는 건 다른 거 같아요.” 이 구술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위로 강제되는 가사노동이 아닐 때, 가사노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즉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가사노동 수행자가 향유하기

12) 본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다른 구술자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대부분 구술자들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꺼린다. 이는 집이란 사적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과거 어려웠던 부모님의 삶에 대한 성찰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본 구술자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효율적인 선택으로 여기는데, 이는 구술자가 이미 익숙한 중산층 문화이기 때문이다.

위해선, 가사노동 수행이 선택이어야 함을 함축한다. 그리고 구술자가 비물질적 가치를 기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가사노동을 나누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일부 가사노동을 전가할 수 있는 경제력에 의존한다.

이 절에서 보았듯이, 민주화세대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과학적 지식으로 분명히 인식한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으로 평가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체현하지는 못한다. 과학적 지식과 몸이 체현한 지식의 미끄러짐 사이에 비물질적 가치 향유에 대한 이 세대의 욕망이 있다. 이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하는 양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풍요에 초점을 뒀 일상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에 대한 향유는 미흡했다. 둘째, 전업아내들의 경우, 자녀들과 돌봄의 가치를 일상에서 향유하길 욕망하고 그를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포기했던 삶의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이런 아쉬움으로 스스로는 비물질적 가치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다. 전업남편도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초래된 경제적 무능력이 돌봄이란 비물질적 가치 향유를 방해한다. 즉 (성별)분업 하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사람들의 욕망·필요는 비물질적 가치 향유와 어긋난다. 셋째, 가사노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돌봄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향유한다. 그러나 이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술자의 선택을 온전히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이다. 이는 가사노동 시장화에 따른 계급 불평등과 만난다. 가령 저소득층 여성들은 유급가사노동자가 되어 열악한 고용조건과 이중의 가사노동을 감당한다(이영범 & 남승연, 2009). 해외로 이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어 기본적인 인권조차 침해받기도 한다(Parreñas, 2001). 즉 각 가정의 젠더갈등이 지구적 차원에서 계급갈등으로 이전되면서 유급(이주)가사노동자들은 정치경제 체제에서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게 된다(Parreñas, 2000). 이런 세 가지 양태는 결국 민주화세대가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미흡하게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온전히 향유되지 못하는 비물질적 가치는 적어도 가족의 안녕(well-being)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해 분석했다. 이는 가사노동/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가사노동의 정치경제적 기여를 분명히 해 사회적 유의미성을 밝혀냈지만, 과연 행위자들은 일상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과 정부 영역에서 제공되는 돌봄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시장, 정부,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으로 행위자는 같은 가치를 향유하게 되는 것인지 고려되지 않은 채, 상호 호환 가능한 것으로 질문 없이 가정되었다. 본 논문은 그 호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으로 행위자가 향유하는 가치를 분석해, 질문에 대한 부분적 답을 모색한다.

여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으로 행위자가 향유하는 가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조응하는데, 본 연구 두 세대가 체현한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조응해, 일상에서 체현하는 주된 가사노동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에서 비물질적 가치로 이동한다. 이는 이 연구 구술자들이 살아온 시간 범위가 넓어, 세대별로 상호작용하는 외부조건의 차이가 가치 체현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두드러진 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대 내 성별 또는 경제력에 의해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현하는 가치 차이는 이 글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세대가 구술 자료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범주이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체현된 가치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보다 유용성이 크다. 두 세대를 살펴보면 경제적 저발전의 맥락에서, 초기산업화세대에게 가사노동은 물질적 가치 생산과 그 가치를 사용해 가족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때 가사노동의 가치는 유교 문화적 지식에 의해 평가절하 되지만, 가족의 삶이 유지되는 것으로 구술자들의 몸은 그 가치를 체현한다. 한편, 경제적으로 발전된 조건에서, 민주화세대에게 가사노동의 물질적 가치는 과학적 지식으로 구술자들에게 제시되지만, 구술자들은 그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체현하지 못한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삶에 필요한 물질적 가치의 대부분은 시장·정부를 통해 채워지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생산하는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신, 구술자들은 외로움 등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욕망한다.

그러나 둘째, 민주화세대에서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온전하게 향유되지 못한다. 맞벌이가족의 경우 경제적 풍요를 위해 아이의 정서적 돌봄을 놓쳤고, 가사노동 수행의 불평등 또는 직장에 대한 욕망을 느끼는 전업주부는 본인이 선택한 비물질적 가치를 스스로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다. 단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원하지 않는 가사노동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구술자만이 본인이 선택한 비물질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향유한다. 그러나 이는 젠더갈등을 계급갈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즉 경제력이 있는 소수만 비물질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다수 구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이렇게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는 미흡하게 체현/향유된다.

행위자가 일상에서 향유하는/하고 싶은 가치에 대한 분석은, 행위자의 욕망과 바람을 담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 등 정책의 핵심 의제를 담은 용어의 변화는 행위자의 욕망과 바람이 제외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이 가정을 돌보면서 자아실현의 의미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담은 ‘여성 친화적 정책’은, 남성의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위자를 담지 못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모두가 가정을 꾸릴 것이라 전제되지만, 앞선 장에서 자녀들에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거나, 자녀를 안 낳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구술자들의 욕망을 담지 못한다. ‘일과 삶의 균형’은 행위자 개개인이 일상의 조화를 이룰 것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행위자를 담고 있지만, 그 삶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에 대해 질문을 담았는지 의문이다. 2018년 초, 영국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로움 담당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이 임명된 현실은, 일과 삶의 시간적 혹은 물질적 균형은 이루어져도, 일과 삶에서 향유할 가치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가치의 불균형은, 본 연구 민주화세대가 향유하고자 욕망했던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가 과연 시장과 정부에서 제공되는 돌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 글에서 다른 것으로 정의한 돌봄 행위와 돌봄 가치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론적 경험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행위자가 일상에서 체현한 가치에 초점을 두어, 가사노동 연구와 관련해 이론적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이론적으로, 첫째, 본 연구는 과학적/ 문화적 지식과 몸이 체현한 지식의 어긋남을 포착해, 몸의 사회학이 인식론으로 유의미함을 드러냈다. 과학적/ 문화적 지식과 몸으로 체현한 지식이 어긋난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긋남은 언제나 변화과정에 있는 일상의 한

지점에서 표출되고, 오히려 변화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어긋남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방적 지식에 머물고 무엇보다 행위자를 담지 못한다. 행위자를 담는다는 것은 고전적 경험주의 전통에 따르듯 감각적 경험을 세고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현한 삶의 경험을 지식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때 외적조건에 강제되는 행위자가 아니라, 향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바람을 껴안고 그 조건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행위자가 드러난다. 가사노동 수행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했던 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경제적 발전이라는 외적 조건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욕망하게 된 구술자들이 향유하고 싶었던 가사노동의 비물질적 가치를 포착할 수 없었다. 사실, 몸의 체현을 언어로, 일상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들을 포착하기 위해선, 풍부한 이론적 논의들과, 행위자가 일상에서 향유하고 있는 또는 놓치고 있는 가치들을 드러내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행위자를 담은 정책 생산으로 정책대상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비로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동안 집안일, 가사노동, 돌봄(노동), 재생산 노동, 공급노동 등 많은 어휘들이 주조되었지만, 앞서 이 글에서 쓰는 가사노동 개념에 대한 서술에서 보았듯이, 어떤 어휘도 현재 사회에서 행위자가 가사노동으로 체현/향유하는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다. 가령, 재생산노동이란 어휘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노동에 맞선 개념으로, 정치경제학적 필요를 담아낸 어휘다. 그러나 그 개념 어디에도 비물질적 가치를 포함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물질적 가치 생산을 의미하는 노동으로 자신을 키워던 어머니의 ‘그 무엇’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구술자가 표출했던 심리적 거부감처럼, 인간의 출생과 삶을 공장에서의 상품생산으로 치환한 것처럼 여겨진다. 앞서, 여성구술자가 노점상에 나가면서 자녀를 위해 한상 가득 준비했던 밥상이, 가사노동, 지원노동, 돌봄(노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비록 가사노동을 주된 어휘를 사용했지만 사실 가사노동이란 어휘는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주로 빨래, 음식, 청소 등의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이란 어휘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청소하는 구술자의 의미를 담아내지도 못한다. 이미 돌봄노동이란 어휘가 돌봄의 가치보다는 돌봄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부불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기존연구에서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향유하는 돌봄의 가치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반 스타베런(Van Staveren, 2001)이 이론화했듯이, 돌봄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영역에서 향유해야 할 가치이다. 각각의 어휘들이 그 어휘가 강조하는 초점으로 우리를 초대했고, 그

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사노동 논쟁, 돌봄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들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자녀·가족·이웃과 밥 한 그릇, 삶의 한 조각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 무엇’을 개념화 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후속 논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되었지만, 체현된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본 연구가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폭넓게 가사노동 수혜자들의 가치 체현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일상의 삶에서 가치의 향유란, 더군다나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때, 상대방이 그 가치를 어떻게 향유하는가는 곧 행위자의 가치 향유와 직결된다. 가령, 앞서 구술자가 아이가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하고 만드는 음식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맛있게 먹지 않을 때, 맛있게 먹지만 표현하지 않을 때,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고맙다고 표현할 때, 이 세 경우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 향유하는 가치는 다를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해야 할 일로 강제되어서,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 세 경우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향유하는 가치도 다를 것이다. 이렇듯 삶은 언제나 구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구술자들이 향유하고 싶었던 비물질적 가치가 어떻게 일상에서 체현되는지, 당사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세밀히 분석할 때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 정부,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으로 향유하고 체현되는 가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의 시장화 사회화 속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러나 일상의 삶에 꼭 필요한 가치를 논의·정책의 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이수(2011). “남성부양자 가족의 균열과 지속”.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4호, 123-145.
- 구은정(2019). “저출산에 대한 인식지평 확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 *여성연구*, 제100권 제1호, 191-226.
- 권태희(2006). “여성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1-20.
- 김경일(2012).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가족과 결혼으로 본 근대 한국의 풍경*. 서울: 푸른 역사.
- 김남옥(2012). “몸의 사회학적 연구 현황과 새로운 과제”. *사회와이론*, 제21권 제1호, 289-326.
- 김은정(2012). “1930-4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통한 ‘직업여성’의 근대적 주체성 형성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6권 제1호, 64-100.
- 김정선(1994). “성별분업”. *여성과 사회*, 제5권, 289-296.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제4호, 37-51.
- 김현주(2007).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3권 제2호, 387-416.
- 김혜경(1999). “가사노동담론과 한국근대가족”. *한국여성학*, 제15권 제1호, 153-184.
- 보건복지부(2012.8.29.) 보도자료.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 박혜경(2008). “중산층 기혼여성의 경험 세계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사노동 가치인식”.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2호, 159-196.
- 서정자(1997). “가사노동 담론을 통해서 본 여성이미지-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19권, 23-51.
-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153-187.
- 윤석명(2013). “노인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06호, 7-17.
- 이영범 & 남승연(2009).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2호, 99-126.

- 전상진(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제38권 제5호, 31-52.
- 정재영(2014). “20 세기 후반 양반의 성격변화와 재실의 건립”.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7권 제1호, 103-137.
- 조순경(2001). “유가 사상과 성별 분업”. *여성학논집*, 제18권, 177-193.
- 한국일보(2006.10.17.). “[강준만 칼럼]비동시성의 동시성”
<https://news.v.daum.net/v/20061017183507349?f=o>에서
2019.3.15. 인출
- 황아란(2009).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한국과국제정치*, 제25권 제3호, 191-217.
- An, Mi-Young(2012). The Changing Shape of Care-Time Diamond: Social Care Expansions in the 21st Century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19(2): 137-161.
- Bendelow, G. A., & Williams, S. J.(1998). *The lived body: Sociological themes, embodied issues*. London : Routledge.
- Bryman, A.(1984). The Debate abou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 Question of Method Or Epistemolog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 75-92.
- Budlender, D.(2008). *The Statistical Evidence on Care and Non-Care Work Across Six Countries*.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Chang, Kyung-Sup.(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London : Routledge.
- Cho, Mi-Kyung.(1994). Korea: The 1990 Family Law Refor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Women. *University of Louisville Journal of Family Law* 33: 431-444.
- Davis, J. B.(2003). *The theory of the individual in economics: Identity and value*. London : Routledge.
- Fredrickson, B. L.(2013). *Love 2.0. Creating happiness and health in moments of connection*. New York : PLUME.
- Fredrickson, B.(2009). *Positivity*. New York : Three Rivers Press.
- Gardiner, J.(2000). Domestic Labour Revisited: A Feminist Critique of Marxist Economics. In S. Himmelweit (Ed.). *Inside the*

- Household from Labour to Care*(pp. 80-101), London : Macmillan.
- Hammersley, M.(1995). Theory and evidence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y and quantity*, 29(1), 55-66.
- Heller, A.(1984). *Everyday Life*. Sydney: The Law Book Company of Australasia.
- Himmelweit, S.(2000). *Inside the Household: From Labour to Care*. London : Palgrave Macmillan.
- Himmelweit, S.(2007). The Prospects for Caring: Economic Theory and Policy Analysi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1(4): 581-599.
- Himmelweit, S. & Mohun, S.(1977). Domestic Labour and Capital.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1): 15-31.
- Kain, P.J.(1993). Marx, Housework, and Alienation. *Hypatia* 8(1): 121-144.
- Klamer, A.(2017). *Doing the right thing: A value based economy*. London : Ubiquity Press.
- Koo, E.(2018). “ Where is the value of housework?”: re-conceptualizing housework as family care activity. ISS PhD Thesi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Koo, E.(2019). Women’s subordination in Confucian culture: Shifting breadwinner practic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5(3): 417-436.
- Mannheim, K.(1952).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pp 276-322), London : OUP.
- Mead, G.H.(1967). *Mind, Self &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W. Morris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lyneux, M.(1979). Beyond the Domestic Labour Debate. *New Left Review*, 116(3): 27.
- Nam, Sang-Hui.(2010). The Women’s Mov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Family Law in South Korea. Interactions between Local, National and Global Structures. *Europe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1): 67-86.

- Neysmith, S.(2012). *Beyond Caring Labour to Provisioning Work*.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Ochiai, E.(2014). Leaving the West, Rejoining the East? Gender and Family in Japan's Semi-Compressed Modernity. *International Sociology*, 29(3): 209-228.
-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Paris: OECD.
- Pascall, G., & Sung, S.(2007). *Gender and East Asian welfare states: From Confucianism to gender equality*. Working paper of East Asia, Fourth Annual East Asian Social Policy research network (EASP) International Conference.
- Parreñas, R.S.(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eñas, R.S.(2000). Migrant Filipina Domestic Workers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Reproductive Labor. *Gender & Society*, 14(4): 560-580.
- Pfau-Effinger, B.(2004). Socio-historical Paths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 - an Explanation of Cross-National Differen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3): 377-399.
- Polanyi, K.(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 Beacon press.
- Razavi, S.(2007). *The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in a development context: Conceptual issues, research questions and policy options*. Concept Paper, UNRISD Project on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 Rosso, B. D., Dekas, K. H., & Wrzesniewski, A.(2010). On the meaning of work: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review.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0, 91-127.
- Sandelowski, M.(1993). Theory unmasked: The uses and guises of theory in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6(3), 213-218.
- Sevenhuijsen, S.(2004). Trace: A method for normative policy analysis from the ethic of care. In Sevenhuijsen, S., & Švab, A. (Eds.). *The Heart of the Matter. The Contribution of the Ethic of Care to Social Policy in Some New EU Member States*(pp.13-46), Peace Institute, Institute for Contemporary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 Shilling, C.(2004). *The body and social theory*. Newcastle : Sage.
- Shilling, C.(1997). The undersocialised conception of the embodied agent in modern sociology. *Sociology*, 31(4), 737-754.
- Wehrle, M.(2016). Normative Embodiment. The Role of the Body in Foucault's Genealogy. A Phenomenological Re-Reading.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47(1), 56-71.
- Yoon, Ja-Young.(2014). Counting Care Work in Social Policy: Valuing Unpaid Child-and Eldercare in Korea. *Feminist Economics*, 20(2): 65-89.
- Van Staveren, I.(2001). *The Values of Economics: An Aristotelian Perspective*. London : Psychology Press.
- Van Staveren, I.(2007). Beyond Utilitarianism and Deontology: Ethics in Economics.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9(1): 21-35.

Abstract

Embodied Value of Housework in Everyday Life

Eun Jung, Koo*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economic value of housework have proved the significance of housework in society through clarifying its impact on political economic life. However, due to the lack of studies on the actors' embodied value of housework, there is little comprehension on how actors enjoyed and recognize the value of housework in everyday life. Therefore, relying on the concepts of embodied sociology and value-based economy, this study analyses, employing 72 interview texts, the embodied value of housework generated by the interactions of actors with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aying: "value, what value, I don't know such a thing" goes, the early industrialization generation did not recognize the value of housework that women deserve and took it for granted. Nevertheless, under the national poverty by economic underdevelopment in then Korea, without women's work that includes housework, maintaining family and bringing up children would have been impossible. In this context, this generation revealed the embodied value of housework, saying "honestly, to measure the value with money is impossible." By contrast, democratization generation has obviously recognized the value of housework through studies and mass-media. However, unlike their consciousness, their embodied value of housework in everyday life is little, which is revealed in their story, "Yet, I have not found the value myself." In the meantime, reflecting the lack of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who were so busy for a living, they desire for the emotional value of housework such as giving emotional safety or consolation to childre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s the mismatch between actors' embodied value of housework and the value defined by existing studies and the actors' desire for emotional value of housework beyond its material value. However, because all interviewees are adult care-givers, I expect that the embodied value of housework of care receivers will be discovered by follow-up research.

* Lecturer, Dongguk University, Seoul

Keywords : housework, embodied value, generation, emotional value, material value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기나휘**·유계숙***

초 록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낙태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66명과 여자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적대적 성차별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온정적 성차별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결혼의향은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낙태 허용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모두 낙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모두 그 수준이 낮을수록 낙태에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 허용도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낙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살펴보고 향후 낙태법 개정 방향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 온정적 성차별,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낙태법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9) 축약본임.

** 제 1저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 석사(tjsgy12@khu.ac.kr)

***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dongrazi@khu.ac.kr)

I. 서론

‘낙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중심 이슈였다. 2017년 9월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하였다. 지난 해, 1년간 이어진 여성시위의 주된 내용 중 하나도 낙태 합법화의 문제였으며, 이는 현재의 낙태 문제가 이전의 담론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년 청구된 낙태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행 낙태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에 있어 낙태를 하는 의사와 임부는 처벌하나, 남성은 제외되어있다. 시위에서는 불공정한 처벌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관들은 모자보건법 상의 이유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시대적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점차 합법화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에 반대하여 시술거부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대립 사이에서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갈등으로만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낙태의 딜레마에 서있는 당사자인 여성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태법의 구조에서 여성만이 처벌받고 남성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여성 시위가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유는 낙태 합법화만의 문제가 아닌 불법 촬영과 남녀 편파 수사 등 그 기저에 깔려 있던 성차별주의(sexism)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차별은 한국에 여성혐오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 특히 현재 보여 지는 성차별은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상수 외, 2007).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Glick과 Fisk(1996)는 성차별은 단순히 적대감만이 아닌 상대에 대한 온정적 태도와 질시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적대적 성차별(HS: Hostile

Sexism)과 온정적 성차별(BS: Benevolent Sexism)의 양가적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BS)은 좀 더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 지금의 은밀하게 드러나는 성차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의 ‘낙태담론’은 젠더 논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지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정원·안상수·김혜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친화적 정책에 반대하고 온정적 성차별(BS)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친화적 정책과 비친화적 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흔히 정치적 진보나 보수에 따라 낙태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양가적 성차별 태도가 낙태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dson & MacInnis, 2017).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여성정책은 성차별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은 현재 논쟁되고 있는 낙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결에 앞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 보고서(2018)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93.9%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79.7%는 임신 가능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며 임신과 낙태를 항상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낙태를 고려하는 사유에 대한 1순위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29.1%)였으며 2순위는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20.2%)였다. 실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98.2%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선택이었고 합법적 시술이 1.8%에 불과하였다는 결과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행 낙태법의 효용성 문제를 상기시킨다. 실제로 현행 낙태 관련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61.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77.3%가 현행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낙태법이 낙태의 주체인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낙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국내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이들이 실제로 낙태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중요한 것은 낙태를 경험했던 여성 중 20대 이하였던 여성의 비율이 63.3%에 달했고, 미혼이었던 여성이 46.9%(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별·사별 2.2%)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즉 20대 미혼인 여성이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낙태의 취약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미혼 20대가 낙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정부는 낙태 단속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엄격히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엄격한 낙태법은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는 낙태법이 출산에 별다른 작용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곧 기혼자의 출산을 의미한다. 출산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써 결혼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오원옥, 2009; 이삼식,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즉 정부의 엄격한 낙태 단속보다 결혼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일수록 출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모성애적 태도(motherhood attitude)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2011; Huang et al., 2014).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의 결혼의향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결혼의향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혼 남녀대학생의 낙태허용도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낙태법 개정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젠더 이슈를 풀어갈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남녀대학생의 결혼의향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허용도를 매개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는 Glick과 Fiske(1996)가 고안한 개념으로 성차별을 하는데 있어 이성에 대한 적대감만이 아니라 애정과 질시가 함께 공존한다고 가정한다. Glick과 Fiske(1996)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차별의 근거라고 가정했던 과거와 달리, 단순히 적대감만을 차별의 근거로 보는 것이 성차별을 이해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성차별보다 실제 현상을 적합하게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2가지로 구성된다. 적대적 성차별(HS)은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적대적으로 여기며 여성은 주도적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BS)은 여성을 보호와 애정의 대상으로 보며 남성을 보완하는 역할로써 대한다. 온정적 성차별(BS)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역시 은밀히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기존의 남성 권력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성차별의 일부이다(김재은·김지현, 2016; Glick & Fiske, 1996, 2001). 지금까지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여성에 대한 보호, 우호적 태도, 친절로 포장되어 있어 문제로써 인지되지 않았으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성차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Glick & Fiske, 2001).

Glick과 Fiske(1996)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은 가부장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Heterosexuality) 3가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부장주의와 성역할 분화, 이성애 모두 적대적과 온정적 경향을 함께 내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부장주의’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Glick & Fiske, 1996). 가부장주의는 다시 남성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 여성을 지배한다는 논리의 지배적 가부장주의(dominant paternalism)와 여성을 모성애에 기반하여 어머니, 아내, 사랑의 대상으로서 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protective paternalism)로 구분된다(Glick & Fiske, 1996,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 가부장주

의보다 보호적 가부장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가 보다 당연시되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된다(Lee et al., 2010). ‘성역할 분화’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역할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는 것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이다(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Glick & Fiske, 1996). 이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i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로 구분된다. 경쟁적 성역할 분화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이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을 고정적 성역할에 귀속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양호, 2014). 마지막으로 ‘이성애’는 가장 강력한 양가적 감정의 근원이다. 이성애는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친밀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이성애적 친밀함(heterosexuality intimacy)은 남녀관계를 낭만적으로 규정해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근원이 될 수 있다(Glick & Fiske, 1996). 반면,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통해 남성을 유혹한다는 논리의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ity hostility)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성차별과 교묘하게 행해지는 성차별을 함께 측정하여 현대의 성차별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

모자보건법 상에서 낙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현재까지 낙태에 대한 논의는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대립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Carlton, Nelson & Coleman, 2000; Misra & Hohman, 2000; Jelen, 2015)은 ‘Pro-life’와 ‘Pro-choice’ 중 하나의 선택을 위주로 이루어져왔고, ‘Pro-life’와 ‘Pro-choice’ 사이에서 어느 쪽을 보다 지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선택만으로는 낙태허용도를 검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허용도를 이주현과 유계숙(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생명의 존

엄성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에서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지에 관한 태도”로 규정하였다.

주목할 점은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논의하기 전에 앞서, 이러한 성역할태도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BS)을 지지하는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cker, 2010), Sibley와 Wilson(2004)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훼손하려는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HS)은 높았으나 온정적 성차별(BS)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Huang과 동료들(2016)은 성별보다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를 보다 잘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Jelen(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역할 태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성 평등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낙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 Buffalo, 2004). Patel과 Johns(2009)의 연구에서도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낙태 자율성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은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nin, 1985).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은 독특한 방식으로 낙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Osborne과 Davies(2012)의 연구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택적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ang과 동료들(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이 선택적 낙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외상적 낙태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gun과 Walls(2015)는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종류든 고정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Huang과 동료들(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택적 낙태와 외상적 낙태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모성애적 태도(motherhood attitude)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선택적, 외상적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의 완전매개변수임을 확인했다. 즉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모성애적 태도가 높아지며, 모성애적 태도 수준이 높아지면 선택적 낙태와 외상적 낙태를 지지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가 상반되고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국내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허용도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한다.

3.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는 곧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출산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변인은 ‘결혼의향’이다. 결혼의향이란 미래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마음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출산의향은 결혼의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필요성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미향(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결혼의향 또한 성역할태도와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김중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결혼의향이 높으며, 서지희(2009)와 이삼식(2006)의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거부할수록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였다. 최효미(2017)의 연구에서는 성 평등적 성역할 분담을 지지할수록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할 확률이 낮아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현주·이동원·김모란(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다 유동적인 성역할을 선호하는 대학생은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김경숙(2018)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이 결혼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 기대와 관련한 성역할이 사회화되는 것은 온정적 성차별주의(BS)와 관련이 있다(Glick & Fiske, 2001; Overall et al., 2011). 온정적 성차별(BS)은 사회의 성역할과 결혼기대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이끌어 낸다(Major et al., 2007). 결혼에 대한 기대는 낭만적 신념에서 비롯되는데 낭만적 신념은 온정적 성차별(BS)에 기인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흠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Glick & Fiske, 2001). 이 때문에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Glick & Fiske, 1996), 혼전 관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을 지지하는 여성은 관계에 만족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Hammond & Overall, 2013).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BS)만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적대적 성차별(HS) 역시 관계에 작용을 하고 있다.(Overall et al., 2011.).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결혼의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종합해 보았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은 개인의 결혼관과 의식, 기대와 관련이 있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개인이 지니는 결혼의향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의향은 출산의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결혼 의향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2018년 7월~9월에 걸쳐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모든 응답자로부터 설문지 작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총 340부의 자료를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하여 결측이 있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33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50.0%, 여자 50.0%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22.72세였으며, 종교가 있는 이들은 32.3%, 없는 이들은 67.4%로 나타났다. 한편 성경험이 있는 이들은 59.9%, 없는 이들은 39.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족 월평균 소득은 746.26만원으로 보고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2)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자	50.0		
	여자	50.0		
연령(세)			22.72 (2.56)	18-28
종교	무	67.4		
	유	32.3		
성관계여부	무	39.5		
	유	59.9		
월평균소득 (만원)			746.26 (897.60)	80-10000

2. 측정도구

1) 양가적 성차별주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안상수와 동료들(2007)이 Glick과 Fiske(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현황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다면성별의식검사는 적대적 성차별(HS) 12문항과 온정적 성차별(BS)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총점은 각 12-48점이다.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며 여성이 전통적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HS)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 온정적 성차별(BS)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2) 결혼의향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결혼의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혀 없음(1점)’부터 ‘전적으로 있음(4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제시하였다.

3) 낙태허용도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낙태허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계숙(2012)이 선행연구(보건복지부, 2005; 이주희, 2008;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 2008)를 기초로 구성한 낙태허용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총점 범위는 16-64점이며,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허용한다(4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낙태허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 결혼의향 및 낙태허용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여부,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확인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단계를 진행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

남녀대학생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HS)은 평균 18.96점(SD=5.83)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온정적 성차별(BS)은 평균 23.92점(SD=7.14)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은 평균 2.95점(SD=.95)으로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낙태허용도는 평균 48.57점(SD=10.17)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
(N=332)

변인	평균(표준편차)	범위
적대적 성차별주의(HS)	18.96(5.83)	12-34
온정적 성차별주의(BS)	23.92(7.14)	12-43
결혼의향	2.95(.95)	1-4
낙태허용도	48.57(10.17)	16-64

2.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및 낙태허용도 간의 관련성

본 연구 대상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HS)을 살펴보면, 남성($r=.42$, $p<.001$)이고 연령이 높을수록($r=.33$, $p<.001$) 높게 나타났으며 성경험($r=.30$, $p<.001$)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r=.13$, $p<.01$)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온정적 성차별(BS)은 남성($r=.45$, $p<.001$)이며 연령이 높고($r=.28$, $p<.001$), 성경험($r=.22$, $p<.001$)이 있을 경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4$, $p<.05$). 마지막으로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r=-.13$, $p<.05$)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고($r=-.16$, $p<.01$)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r=.15$, $p<.01$) 낙태에 더 허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3>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간의 상관관계

($N=332$)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별 ^{a)}									
2. 연령	.42***								
3. 종교 ^{b)}	-.09	-.10							
4. 성관계여부 ^{c)}	.38***	.44***	-.12*						
5. 월평균소득	.12*	.16**	.11	.07					
6. HS	.42***	.33***	-.02	.30***	.13*				
7. BS	.45***	.28***	.10	.22***	.11	.61***			
8. 결혼의향	.09	.09	.14*	.09	.07	.25***	.37***		
9. 낙태허용도	-.13*	-.03	-.16**	.15**	-.05	-.15**	-.21***	-.27***	

* $p<.05$, ** $p<.01$, *** $p<.001$

주: a) 성별 남성=1, 여성=0

b) 종교 유=1, 무=0

c) 성관계 여부 유=1, 무=0

3.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산팽창지수(VIF)는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odel 1에서 주요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 여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투입한 결과, 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이고($\beta=-.23$, $p<.001$), 종교가 없으며($\beta=-.14$, $p<.05$),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 $p<.01$).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한 후, 적대적 성차별(HS)을 투입한 결과, 전체 변량의 10%를 설명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5.18$, $p<.001$). 즉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경험이 있고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낙태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14$, $p<.05$).

다음으로 온정적 성차별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 여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투입한 결과, 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이고($\beta=-.23$, $p<.01$), 종교가 없으며($\beta=-.14$, $p<.05$),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 $p<.01$).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한 후, 온정적 성차별(BS)을 투입한 결과,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5.73$,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과 같이,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경험이 있고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낙태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18$, $p<.01$).

<표 4>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N=332)

변인	낙태허용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상수)	51.48 (6.67)		53.11 (6.67)		51.86 (6.66)		54.41 (6.64)	

변인	낙태허용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성별 ^{a)}	-4.76 (1.34)	-.23***	-3.91 (1.39)	-.19**	-4.61 (1.34)	-.23**	-3.20 (1.42)	-.16*
연령	-.10 (.31)	-.02	-.00 (.31)	-.00	-.13 (.31)	-.03	-.02 (.31)	-.01
종교 ^{b)}	-2.99 (1.26)	-.14*	-2.91 (1.25)	-.13*	-2.93 (1.26)	-.14*	-2.48 (1.25)	-.12*
성관계 여부 ^{c)}	4.42 (1.35)	.21**	4.81 (1.35)	.23***	4.59 (1.35)	.22**	4.81 (1.33)	.23***
월평균소득	.00 (.00)	-.02	-5.29 (.00)	-.01	.00 (.00)	-.01	-8.22 (.00)	-.01
HS			-.25(.12)	-.14*				
BS							-.25(.09)	-.18**
R ²	.09		.10		.09		.11	
F	5.25***		5.18***		5.25***		5.73***	

*p<.05, **p<.01, ***p<.001

VIF=1.03-1.44

주: a) 성별 남성=1, 여성=0

b) 종교 유=1, 무=0

c) 성관계 유무 유=1, 무=0

4.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적대적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적대적 성차별(HS)은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5$, $p<.001$), 2단계에서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eta=-.12$,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결혼의향이 높고, 낙태허용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적대적 성차별(HS)과 결혼의향을 투입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HS)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20$, $p<.001$) 결혼의향이 적대적 성차별(HS)과 낙태허용도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63,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이처럼 높은 결혼의향을 매개로 낙태에 대한 비허용적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은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1, p<.001$), 2단계에서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eta=-.18, p<.001$). 즉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결혼의향이 높고, 낙태허용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과 결혼의향을 투입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BS)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17, p<.001$) 결혼의향이 온정적 성차별(BS)과 낙태허용도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02, p<.01$). 온정적 성차별(BS) 역시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이처럼 높은 결혼의향을 매개로 낙태에 대한 비허용적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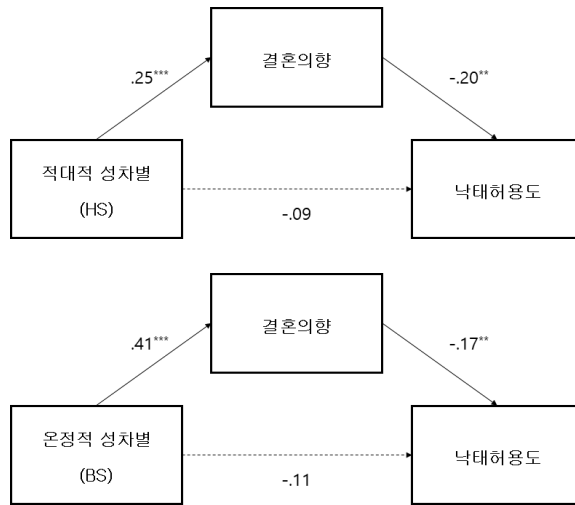
〈표 5〉 적대적 성차별(HS)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N=332$)

단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다중 상관지수 (R^2)	F
1	적대적 성차별(HS) → 결혼의향	.04	.25***	.09	4.84***
2	적대적 성차별(HS) → 낙태허용도	-.25	-.12*	.10	5.18***
3	적대적 성차별(HS) → 낙태허용도 결혼 의향 → 낙태허용도	-.16 -2.12	-.09 -.20**	.14	6.20***
단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다중 상관지수 (R^2)	F
1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결혼의향	.05	.41***	.17	9.69***
2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낙태허용도	-.25	-.18**	.11	5.73***
3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낙태허용도 결혼 의향 → 낙태허용도	-.15 -1.86	-.11 -.17**	.14	6.16***

* $p<.05$, ** $p<.01$, *** $p<.001$

주: 통제변 성별(1=남성, 0=여성), 연령, 종교여부(1=유, 0=무), 성관계여부(1=유, 0=무)는 표시하지 않음



[그림 1]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67명과 여자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으며,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사이에서 결혼 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논의와 실질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차별(HS)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정적 성차별(BS)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재은·김지현, 2016; 안상수 외, 2007)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온정적 성차별(BS)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 한편, 결혼의향은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낙태허용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보다 반대하는 학생이 약간 많다는 이정환(201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나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

탄ان 전명희와 동료들(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전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낙태에 대한 태도는 점차 허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낙태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9년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재은·김지현, 2016; 우양호, 2014; Glick & Fiske, 1996; Glick et al., 2000)와 일치한다. 이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성차별적 편견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가적 성차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어린 세대일수록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안상수 외, 2007; Glick & Fiske, 199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릴수록 성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지 않고 이성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성경험 유무 또한 양가적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Lemus, Moya와 Glick(2010)은 이미 성 편견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이성에게 자신의 성역할을 매력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차별을 바탕으로 한 태도가 이성에게는 성적 매력이나 배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득 역시 양가적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의향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당위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혜민·전귀연, 2018)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낙태허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낙태허용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이라는 연구결과(이정환, 2011; 전명희 외, 2014)와 흐름을 같이한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93.9%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들 중 79.7%가 낙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임신의 주체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

별(BS) 수준이 낮을수록 낙태에 더 허용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 모두 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나타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Begun & Walls, 2015; Huang et al., 2014; Osborne & Davies, 2012)과 일치한다. 고려해야 할 점은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낙태에 허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모성애는 젠더 역할에 이상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온정적 성차별(BS)과는 달리, 적대적 성차별(HS)은 여성이 그들의 성(sexuality)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비난한다(Glick & Fiske, 1996). 또한 온정적 성차별(BS)은 어린 유아와 임신한 여성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ler et al., 2013). 즉 낙태에 비허용적 태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성차별(HS)을 지닌 사람과 온정적 성차별(BS)을 지닌 사람이 가지는 낙태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정적 성차별(BS)을 지닌 사람은 여성의 몸을 모성의 탄생지로써 낙태를 반대할 수 있는 반면, 적대적 성차별(HS)을 가진 사람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지하며 낙태를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더 분화되어있는 성차별 태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넷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높은 결혼의향을 가지며, 이를 매개로 낙태허용도가 낮아지는 것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청년층에서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이 높으면 모성애적 태도가 높아지고 이를 완전 매개로 외상적 낙태와 선택적 낙태에 대해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는 연구(Huang et al., 2016)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의향과 모성애적 태도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나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점(Chrisler et al., 2013)은 동일하다. Huang과 동료들(2013)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특정한 성역할(i.e. motherhood)과 정책(i.e. abortion)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결혼의향과 낙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낙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법 개정에

관한 과제가 주어졌다. 개정에 앞서 법 적용의 대상자들이 낙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층은 낙태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태도만을 살펴보는 것은 개정 방안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 친화적 정책에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영향을 미친다(이정원·안상수·김혜숙, 2009). 따라서 낙태법 개정의 방향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어떤 성차별적 태도를 지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 낙태가 젠더 논쟁을 불러왔다는 점은 이러한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년층의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은 상당히 낮았으며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은 비교적 높았다. 이를 통해 요즘의 대학생들은 예전과 같이 여성을 임신수단으로써 판단하기보다 모성의 주체로써 여성을 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들릴 수 있으나, 온정적 성차별(BS) 역시 성차별의 일종으로 여성을 성적 불평등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을 결정한 재판관들은 낙태법에 '기간방식'의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위헌의견에서는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임신 22주 내외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임신 14주가 사회·경제적 낙태의 허용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성차별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이 보호 대상이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태의 결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은 여성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며, 남성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존재한다. 처벌규정에서 남성이 제외되어 문제가 있었듯이 향후 개정사안에서도 남성이 제외될 경우 임신과 낙태의 책임에서 남성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다시 여성 혼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성차별적 편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낙태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나 남성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임과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되는 바이다. 유전적 문제와

산모의 건강이 위협되는 상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오히려 여성의 몸에 해가 될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사전 피임으로 예방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고자 한다면 피임을 철저히 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피임법을 중점으로 한 성교육 마련이 낙태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낮았다는 결과와 모성애적 태도가 높을수록 선택적 및 외상적 낙태에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는 결과(Huang et al., 2016)를 종합해 보았을 때, 낙태에 대한 태도는 가족계획과 연관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는 미혼 대학생들에게도 결혼이 임신과 출산, 낙태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층이 향후 결혼과 가족계획의 단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한 사전피임법의 습득이 필수적이므로, 피임과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편의표집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은 결혼의향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게 정립되는 시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다양한 나이대의 표집을 통해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어떠한 성차별을 바탕으로 낙태에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유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그것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해 허용도라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였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지를 알아볼 것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된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낙태허용도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현재 낙태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젠더 논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될 경우, 낙태문제는 본질을 잃고 젠

더 문제로만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낙태법이 온전히 법적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논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차별주의(sexism)를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성차별의 유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낙태법 개정 방향의 단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숙(2018). 예비 결혼세대인 미혼 남녀의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혼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 13(2), 289-299.
- 김재은·김지현(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한국상담학회*, 17(1), 187-205.
-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김현주·이동원·김모란(1995). 남녀 대학생의 성역할 모델과 취업 및 결혼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66(1-3), 191-212.
-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박혜민·전귀연(2018). 미혼남녀의 정서적·당위적·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53-80.
- 보건복지부(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 서지희(2009). 미혼 취업 여성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양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안상수·김혜숙·안영미(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19(2), 39-66.
- 안상수·백영주·김인순·김혜숙·김진실(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2-204.
- 오원옥(2009). 대학생의 결혼의식, 원가족 건강성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32-240.
- 우양호(2014).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의 규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52(1), 271-301.
- 유계숙(2012).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11.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6(2), 95-140.
- 이정원·안상수·김혜숙(2009).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관련 정책 및 강간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8-209.

- 이정환(2011). 낙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한국사회과학연구*, 33(1), 193-203.
- 이주희(2008). 낙태관계규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청주법학*, 30(2), 143-168.
- 전명희·신계영·최경숙·이선애·홍선우(2014). 간호대생의 결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 *한국간호교육학회*, 20(2), 312-320.
- 최효미(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49-5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 정책 개선 방안.
- _____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 _____ (2018).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cker, J. C. (2010). Why do women endors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The role of salient female subtypes and internalization of sexist contents. *Sex Role*, 62, 453-467.
- Begun, S., & Walls, N. E. (2015). Pedestal or gutter: Exploring ambivalent sexism's relationship with abortion attitudes. *Affilia*, 30(2), 200-215.
- Benin, M. H. (1985). Determinants of opposition to abortion: An analysis of the hard and soft scales. *Sociological Perspectives*, 28(2), 199-216.
- Carlton, C., Nelson, E., & Coleman, P. (2000).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abortion and commitment to the issue.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 619-625.
- Chrisler, J. C., Gorman, J. A., Marvain, M. L., & Johnstone-Robledo, I. (2013). Ambivalent sexism and attitudes toward women in different stages of reproductive life: A semantic, cross-cultural approach.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 634-657.
- Dardenne, B., Dumont, M., & Bollier, T. (2007). Insidious dangers of benevolent sexism: Consequences for women's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64-779.

- De Lemus, S., Moya, M., & Glick, P. (2010). When contact correlates with prejudice: Adolescents' romantic relationship experience predicts greater benevolent sexism in boys and hostile sexism in girls. *Sex Roles*, 63, 214-225.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Glick, P. et al (eds).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775.
- Hammond, M. D., & Overall, N. C. (2013). Men's hostile sexism and biased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s: Fostering dissatisfaction and negative behavior in close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12), 1585-1599.
- Hodson, G., & MacInnis, C. C. (2017). Can left-right differences in abortion support be explained by sex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118-121.
- Huang, Y., Davies, P. G., Sibley, C. G., & Osborne, D. (2014). The precious vessel: Ambivalent sexism and opposition to elective and traumatic abortion. *Sex Roles*, 71(11), 436-449.
- Huang, Y., Davies, P. G., Sibley, C. G., & Osborne, D. (2016). Benevolent sexism, attitudes toward motherhood, and reproductive rights: A multi-study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bortion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7), 970-984.
- Jelen, T. G. (2015). Gender Role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abortion: A cross-national exploration 1. *Journal of Research in Gender Studies*, 5(1), 11-22.
- Lee, T. L., Fiske, S. T., Glick, P., & Zhixia Chen. (2010). Ambivalent sexism in close relationships: (Hostile) Power and (Benevolent) romance shape relationship ideals. *Sex Roles*, 62(7-8), 583-601.

- Major, B., Kaiser, C. R., O'Brien, L. T., & McCoy, S. K.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s worldview threat or worldview confirmation: Implications for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068-1086.
- Misra, R., & Hohman, S. (2000). Trends in abortion attitude among young adults: 1977-1993.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2), 85-98.
- National Ca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2007). *Magical thinking, Young adult'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sex, contraception, and unplanned pregnancy, Results from a Public Opinion Survey*.
- Osborne, D., & Davies, G. P. (2012). When benevolence backfires: Benevolent sexists' opposition to elective and traumatic abor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 291-307.
- Overall, N. C., Sibley, C. G., Tan, R., & Simpson, J.(editor). (2011). The costs and benefits of sexism: Resistance to influence during relationshi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271-290.
- Patel, C. J., & Johns, L. (2009). Gender role attitudes and attitudes to abortion: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6(3), 493-505.
- Sibley, C., & Wilson, M. (2004).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t attitudes toward positive and negative sexual female subtypes. *Sex Roles*, 51(11), 687-696.
- Wang, G. Z., & Buffalo, M. D. (2004). Social and cultural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abortion: a test of Reiss' hypothes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2004, 41(1), 93-105.

Abstract

The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on Acceptance of Abortion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Intention

Na Hwi, Ki*·Gye Sook, Yoo**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s for amending the abortion law in Korea by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intent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abortion. For this purpose, 166 male and 166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had a moderately low level of hostile sexism and a slightly low level of benevolent sexism. Their level of marriage intention was above average and acceptance of abor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ambivalent sexism was higher for male and older students and also for those who had sexual experience and whose monthly family income was higher. Moreover, religion was found to be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marriage intention, and greater acceptance of abortion was exhibited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sexual experience who have no religion.

Thir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hostile sexism and benevolent sexism affected acceptance of abortion. Namely, the lower the university students' hostile or benevolent sexism, the greater their acceptance of abortion.

Fourth, marriage intention was shown to have a fu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abor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t is, the higher the university students' level of hostile or benevolent sexism, the higher their

* First Author : Master, Dep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level of marriage intention and the higher their level of marriage intention, the lower their acceptance of abort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th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currently much-debated issue of abortion were examined and ways to amend the abortion law in the future were proposed.

Keywords :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Marriage Intention, Acceptance of Abortion, Abortion law

2019년 3호
(통권 102호)
여 성 연 구

발 행 인	권 인 숙
편 집 인	조 선 주
등 록 일	1983년 11월 23일
등록번호	바-813
발 행 일	2019년 9월 30일
발 행 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불광동 1-363) TEL. 02)3156-7000(代) FAX. 02)3156-7007
인 쇄 처	리드릭 TEL. 02)2269-1919

